

高麗 醫書에 대한 연구

I. 緒論	382
II. 지은이와 저술시기	383
2-1. 『濟衆立效方』	383
2-2. 『御醫撮要』	383
2-3. 『鄉藥古方』	384
2-4. 『鄉藥救急方』	384
2-5. 『鄉藥惠民經驗方』	384
2-6. 『三和子鄉藥方』	384
2-7. 『鄉藥簡易方』	385
2-8. 『東人經驗』	385
III. 고려시대 의서에 대한 고찰	386
3.1. 중국의서와 비교	386
3.2. 고려 의서들의 구성	387
3.3. 고려 의서들의 특징	388
3.3.1. 『제중입효방』	388
3.3.2. 『御醫撮要』	389
3.3.3. 『鄉藥古方』	392
3.3.4. 『鄉藥救急方』	394
3.3.5. 『鄉藥惠民經驗方』	400
3.3.6. 『三和子鄉藥方』	400
3.3.7. 『鄉藥簡易方』	402
3.3.8. 『東人經驗』	403
IV. 고려 의서들의 내용분석	403
4.1. 기초이론	403
4.2. 임상의학	405
V. 맺음말	407

高麗 醫書에 대한 연구*

申舜植·崔桓壽·梁榮竣·洪元植**

* 본논문은 申舜植 등의 『歷代韓醫學 文獻의 考證 I』 「V. 高麗 醫書에 대한 연구」, 서울: 韓國韓醫學研究所, 1996: 74-115.를 좀더 보완한 것이다.

** 韓國韓醫學研究所 醫史文獻研究室

I. 緒 論

고려시대 醫藥史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에 나온 醫書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전제될 때 가능하다. 의서는 당시 의학의 수준이 어떠한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거울이고 또 醫藥史의 내용을 담아내는 그릇이기 때문이다.

고려시대에 나온 의서는 『東人經驗』·『三和子 鄉藥方』·『御醫撮要』·『濟衆立效方』·『鄉藥古方』·『鄉藥救急方』·『鄉藥簡易方』·『鄉藥惠民經驗方』 등이 있다. 『鄉藥救急方』 이외에는 모두 조선 시대에 나온 『鄉藥集成方』(1433년), 『醫方類聚』(1445-1477년)와 『新編集成馬醫方』¹⁾에서 그 일

부를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 金斗鍾과 미키사카에(三木榮)²⁾의 연구에 이어 申榮日의 『『鄉藥救急方』에 대한 연구』(復原 및 醫史學的 考察),³⁾ 孫昌學의 『『三和子 鄉藥方』의 간행시기에 대한 연구』,⁴⁾ 李德鳳의 『『鄉藥救急方』의 方中 鄉藥目 研究』⁵⁾ 등이 나왔으나 국소적이고 충분한 고증을 거치지 않은 연구여서 당시 의서에 대한 전면적인 분석은 미흡한 실정이다.

(50). 서울: 驪江出版社, 1988: 3-202.

2) 인명·지명 등 고유명사의 일본음에 대한 우리말 표기는 씨케이 시스템(김용옥, 『동양학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통나무, 1986: 363-384.)에 의한 것이다.

3) 申榮日, 『『鄉藥救急方』에 對한 研究』(復原 및 醫史學的 考察), 慶熙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94.

4) 孫昌學, 『『三和子 鄉藥方』의 刊行時期에 대한 研究』, 경희대학교 대학원, 1992.

5) 李德鳳, 『『鄉藥救急方』의 方中 鄉藥目 研究』, 『大韓漢醫學會報』 1966: 1·2·5·6·7·8·9.

1) 金信根 編者, 『新編集成馬醫方』, 『韓國醫學大系』

여기에서는 고려의서들을 지은 사람은 누구이고, 지어진 시기는 언제이며, 거기에는 어떤 기초의학과 임상의학의 내용을 담고 있는지 밝혀 보았다. 또 당시 고려에 들어온 중국의서들과 비교하여 고려시대 의약을 간접적으로 평가하여 보았다.

II. 지은이와 저술시기

2-1. 『濟衆立效方』

高麗毅宗21년(1167)에 세워진 『金永錫墓誌』를 통해서 『濟衆立效方』은 金永錫(1146-1166)이 지었음을 알 수 있다.⁶⁾

金斗鍾은 金永錫이 활동하던 시기, 즉 고려毅宗(1146-1170년)사이에 저술되었다⁷⁾ 하고, 미키사카에(三木榮)는 “일찍부터 마송(大宋)⁸⁾과 신라의 醫書를 읽고, 奇妙하고 중요한 것을 골라 짓고는 사람들에게 편리를 도모하였으며, 이 이름을 『제중입효방』이라 하고 세상에 전하였다. (嘗閱大宋·新羅醫書, 手撰奇要, 便於人者, 名之曰: 『濟衆立效方』, 傳於世.)”라는 의종21년(1167)에 건립된 묘비에 있는 내용을 증거로 고

려 의종대인 1147년에서 1170년사이에 저술되었다⁹⁾고 하였다.

김두중과 미키사카에는 저술시기를 넓게 잡고 있고 김영석이 활동하던 시기라는데는 동일한 것으로 보아, 김영석이 修文殿學士를 맡기 시작한 1147년에서부터 1166년 죽을 때까지에 걸쳐서 송(宋)나라 의서와 新羅의 의서를 수집하고 또 효과 있는 처방을 모아 책으로 낸 것일 것이다.

2-2. 『御醫撮要』¹⁰⁾

李奎報(1168-1241)가 쓴 『東國李相國集』 「卷二十一」 「說·序」에 실린 「新集『御醫撮要』方序」에 “지금 樞密相公 崔宗峻이 이것을 보고 애석하여 긴 끝에 그것을 인쇄하여 널리 보급할 것을 생각하고 이를 상계 아뢰니 상께서 흔연히 허락하였다. …… 병술년(고종13년 1226)4월 일에 서한다. (今樞密相公崔宗峻, 見而惜之, 思欲摹印以廣其傳, 以此聞于上, 上遂欣然領可. …… 時丙戌四月日, 序.)”¹¹⁾라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御

9) 三木榮 著, 『朝鮮醫書誌』, 重修版, 大阪: 學術圖書刊行會, 1956: 3-4.

10) 金斗鍾과 三木榮 등 기존의 醫藥史家들은 『御醫撮要』를 『御醫撮要方』으로 표기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이다. 공식적인 명칭은 『御醫撮要』로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又添附諸方之最要者, 使人繕寫, 名之曰『御醫撮要』.”(民族文化推進會 編輯, 『影印標點 韓國文集叢刊』1, 서울: 民族文化推進會, 1991: 512-513)라고 분명하게 나와 있기 때문이다.

11) 民族文化推進會 編輯, 앞의 책, 513; 민족문화추진회 편집, 『동국이상국집』III,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1979: 61.을 참고하여 원문에 標點을 찍었고, 민족문화추진회 편집, 『동국이상국집』III, 앞의 책, 214.을 참고하여 해석을 다듬었다.

6) “嘗閱大宋·新羅醫書, 手撰奇要, 便於人者, 名之曰『濟衆立效方』, 傳於世.”(許興植 編著, 『韓國金石全文』(中世上), 「340. 金永錫墓誌」, 서울: 亞細亞文化社, 1984: 807.)

7) 金斗鍾 著, 『韓國醫學史』, 서울: 探求堂, 1979: 137.

8) 인명·지명 등 고유명사의 중국음에 대한 우리말 표기는 씨케이 시스템(김용옥, 위의 책, 349-361.)에 의한 것이다.

醫撮要』는 崔宗峻이 1226년에 지은 것이다.

2-3. 『鄉藥古方』

지은이가 누구이고 지어진 연대가 언제인지 문헌에 나와 있지 않아 자세히 알 수 없다. 金斗鍾은 고려의 末期의 학에서 서술하였고,¹²⁾ 미키 사카에(三木榮)는 시대순으로 서술하고 있는 『朝鮮醫書誌』에서 『어의촬요』(1226년)와 『향약구급방』(1232-1251) 사이에 놓고 있어¹³⁾ 『향약고방』은 1226년에서 1251년 사이에 지어진 것일 것이다.

2-4. 『鄉藥救急方』

지은이는 자세히 알 수 없다. 日本의 宮內廳圖書寮에 所藏된 木板本 跋文에 “옛날에 大藏都監에서 이 책을 간행했다(昔大藏都監, 刊行是書)”¹⁴⁾라는 내용으로 보아 대장도감에 설치된 고종19년(1232)에서 고종38년(1251) 사이에 지어져 출판되었을 것이다.

2-5. 『鄉藥惠民經驗方』¹⁵⁾

12) 金斗鍾 著. 위의 책, 153-155.

13) 三木榮 著. 위의 책, 6.

14) 金信根 編著. 『韓醫藥書攷』, 初版 第3刷. 서울: 서울大學校出版部, 1989: 18.

15) 『鄉藥惠民經驗方』이라는 이름은 『太祖實錄』 卷3에 정식으로 나오고, (影印縮刷版 『朝鮮王朝實錄』一. 서울: 國史編纂委員會, 1968: 40.) 『鄉藥集成方』과 『醫方類聚』에

『향약해민경험방』이라는 의서의 이름은 조선 『태조실록』 권3(太祖2년 春正月 乙亥條)¹⁶⁾에 보인다. 宋의 官用醫書인 『太平惠民和劑局方』(1107-1110)을 모방하여 고려의 惠民局에서 나온 관용의서라면,¹⁷⁾ 해민국이 설치된 睿宗7년(1118)¹⁸⁾ 이후에 『향약해민경험방』이 저술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2-6. 『三和子鄉藥方』¹⁹⁾

『鄉藥濟生集成方』 「序」에 “..... 국가의 풍속이 왕왕 하나의 약초로서 하나의 병을 치료하였는데 그 효과는 대단히 좋았다. 일찍이 『삼화자향약방』이 있었는데 제법 간결하고 요점만으로 되어 있어 이론을 펼치는 자는 그 생략되어 있

는 『鄉藥惠民經驗方』을 『鄉藥惠民方』으로 略稱해서 쓰고 있다.

16) “전라도 안렴사 김희선이 도평의사사에게 보고하기를 외방에는 의약을 잘 아는 사람이 없으니 각도에 의학교수 한사람을 보내어 계수관마다 하나의 의원을 설치하고 양반의 자제들을 선발하여 生徒로 삼고 글을 알고 조심성이 있는 온후한 사람을 뽑아 敎導로 정하여 『향약해민경험방』을 익히게 한다. 교수관은 두루 다니면서 설명 권장하고 일정하게 採藥丁夫를 함께 소속시켜 때때로 약제를 채취하도록 해서 처방에 따라 만들어 병에 걸린 사람이 있으면 즉시 구료하게 하소서 (全羅道按廉使金希善, 報都評議使司曰: ‘外方無通曉醫藥者, 乞於各道遣醫學敎授一員, 每於界首官, 置一醫院, 選聚兩班子弟, 以爲生徒, 擇其識字謹厚者, 定爲敎導, 令習『鄉藥惠民經驗方』. 敎授官周行講勸, 定屬採藥丁夫, 以時採取藥材, 依方劑造, 有得病者, 隨即救療.’)” (影印縮刷版 『朝鮮王朝實錄』一. 앞의 책, 40.)

17) 三木榮 著. 위의 책, 10.

18) 孫弘烈 著. 『韓國中世의 醫療制度研究』, 1쇄. 서울: 修書院, 1988: 111-112.

19) 『『鄉藥濟生集成方』序』에 『三和子鄉藥方』이라는 이름이 공식적으로 나오고, 『鄉藥集成方』과 『醫方類聚』 본문에는 『三和子鄉藥方』을 『三和子方』으로 약칭하고 있다.

음이 오히려 병이다. 지난날 지금의 판문하 권 중화가 서찬에게 명하여 더욱 수집하여 『간이방』을 저술하였으나 그 책은 여전히 아직 세상에 성행하지 않았다. ……(…… 而國俗往往以一草而療一病, 其效甚驗. 嘗有『三和子鄉藥方』, 頗爲簡要, 論者猶病其略. 曩日今判門下權公仲和, 命徐贊者, 尤加蒐輯, 著『簡易方』, 其書尚未盛行于世. ……)”²⁰⁾라 하였고; 『海東文獻總錄』의 『鄉藥方』에 “고려의 삼화자가 지은 것은 제법 간결한 요점만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후에 권중화가 서찬에게 명하여 더욱 수집하고 『간이방』을 저술하였다(高麗三和子所撰, 頗爲簡要. 後權仲和命徐贊, 更加蒐輯, 著『簡易方』.)”²¹⁾라고 하였다.

위의 내용으로 보아 『三和子鄉藥方』은 三和子が 고려시대 『향약간이방』보다 앞서 지은 것임을 알 수 있다. 다만 三和子の 행적을 알 수 있는 문헌이 없음이 아쉬울 뿐이다.

2-7. 『鄉藥簡易方』²²⁾

『鄉藥濟生集成方』「序」에 “…… 국가의 풍속이 왕왕 하나의 약초로서 하나의 병을 치료하였는데 그 효과는 대단히 좋았다. 일찍이 『삼화자

향약방』이 있었는데 제법 간결하고 요점만으로 되어 있어 이론을 펼치는 자는 그 생략되어 있음이 오히려 병이다. 지난날 지금의 판문하 권 중화가 서찬에게 명하여 더욱 수집하여 『간이방』을 저술하였으나 그 책은 여전히 아직 세상에 성행하지 않았다. ……(…… 而國俗往往以一草而療一病, 其效甚驗. 嘗有『三和子鄉藥方』, 頗爲簡要, 論者猶病其略. 曩日今判門下權公仲和, 命徐贊者, 尤加蒐輯, 著『簡易方』, 其書尚未盛行于世. ……)”²³⁾라고 하였다.

위의 내용으로 보아 『향약간이방』은 徐贊이 權仲和의 명을 받아 『삼화자향약방』을 底本으로 하고 또 더 보완하여 완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향약간이방』은 『삼화자향약방』보다 늦게 이루어진 것이다.

2-8. 『東人經驗』²⁴⁾

權近의 『『鄉藥濟生集成方』序』에 “…… 곧 권군이 관약국 관리들에게 특명을 내려 다시 모든 처방을 검토하고 또한 우리나라 사람(東人)이 민간에서 經驗한 처방을 수집하여 門으로 나누고 類로 엮어 이를 『향약제생집성방』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부록으로 『우마의방』을 넣었다. ……(…… 乃與權公, 特命官藥局官, 更考諸方, 又採『東人經驗』者, 分門類編, 名之曰: 『鄉藥濟

20) 民族文化推進會 編輯, 『影印標點 韓國文集叢刊』7 『陽村集』卷17 『『鄉藥濟生集成方』序』, 서울: 民族文化推進會 發行, 1990: 182.

21) 金佺 編纂, 『海東文獻總錄』, 1쇄, 서울: 新韓書林, 1969: 528.

22) 『『鄉藥集成方』序』에 『鄉藥簡易方』의 이름이 공식적으로 나오고, (俞孝通 盧重禮 朴允德 撰, 『鄉藥集成方』, 『韓國醫學大系』(3-7권), 서울: 羅江출판사, 1988: 4.) 『鄉藥集成方』과 『醫方類聚』 본문에는 『鄉藥簡易方』이 『鄉藥簡易方』으로 나오는데 이 둘은 같은 책이다.

23) 民族文化推進會 編輯, 『影印標點 韓國文集叢刊』7 『陽村集』卷17 『『鄉藥濟生集成方』序』, 위의 책, 182.

24) 金斗鍾과 三木榮 등 기존 의약사가들은 『東人經驗』을 『東人經驗方』으로 표기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이다. 공식적인 명칭은 『東人經驗』으로 봐야 하고 단행본으로 된 책은 아니고 우리나라의 의학에 조예가 깊은 사람이 경험한 효과있는 단편적인 처방으로 봐야 한다.

生集成方』, 附以『牛馬醫方』, ……」²⁵⁾라고 하였고; 『鄉藥集成方』의 「序文」에 “…… 그 후에 또 한 평양 伯臣인 조준 등이 관약국에 명하여 다시 모든 처방을 검토하고 또한 우리나라 사람(東人)이 민간에서 經驗한 처방을 수집하여 門으로 나누고 類로 엮었다. ……(…… 其後又與平壤伯臣趙浚等 命官藥局 更考諸方 又取『東人經驗』者 分門類編……)”²⁶⁾라고 하였으며; 『향약해민경험방』에 “우리나라 사람(東人)이 經驗한 것 중에 風毒을 빼는 方法: 바가지(瓢) 바닥에 구멍 3-4개를 뚫고 물을 발라서 약썩 뜸봉을 붙히고 불을 붙인 다음 상처에 얹어 놓는다. 이렇게 4-5회 하면 병이 곧 낫는다.(東人經驗, 拔風毒法: 瓢底穿三四孔, 以糊着艾炷, 點火蓋附患處, 如此四五遍, 其患即愈.)”²⁷⁾라고 하였다.

위에서 “東人經驗”이라는 말이 나온다. 金斗鍾²⁸⁾과 三木榮²⁹⁾은 모두 『동인경험방』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어떤 완성된 저작물은 아닌 것 같고 『향약제생집성방』, 『향약집성방』, 『향약해민경험방』을 완성할 때, 당시까지 시골에서 효과가 있어 널리 유용하게 쓰이던 우리나라 사람의 임상경험을(東人經驗) 거친 민간처방을 편집해 넣은 단편적 처방일 것이다.

III. 고려시대 의서에 대한 고찰

25) 民族文化推進會 編輯, 『影印標點 韓國文集叢刊』7 『陽村集』卷17 『鄉藥濟生集成方』序, 앞의 책, 182-183.

26) 俞孝通·盧重禮·朴允德 撰, 『鄉藥集成方』, 『鄉藥集成方』序, 金信根 編者, 『韓國醫學大系』(3), 위의 책, 4.

27) 俞孝通·盧重禮·朴允德 撰, 『鄉藥集成方』, 金信根 編者, 『韓國醫學大系』(3권), 앞의 책, 169.

28) 金斗鍾 著, 위의 책, 155.

29) 三木榮 著, 위의 책, 14-15.

『향약집성방』·『의방유취』·『신편집성마의방』에서 인용한 고려의서들의 조문과 처방의 수를 조사하였다. 조문은 『향약집성방』의 경우, 예를 들어 『향약구급』이라하고 그 뒤에 나오는 내용 전체를 1개로 하였고, 처방은 내용을 해석하여 별개의 처방일 때 나누어 계산했다. 『의방유취』의 조문은 『어의촬요』라고하여 내용이 나오는 경우 전체를 하나의 조문으로 삼았고 처방의 수는 위와 같다. 고려시대에 대해 설명한 책들마다 단어와 인용회수가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3.1. 중국의서와 비교

『壽域神方』·『備預百要方』·『大全本草』·『衛生簡易方』·『神巧萬全方』·『食醫食鑑』·『千金月令』·『瑣碎錄』·『永類鈴方』·『烟霞聖效方』·『經驗良方』·『助道方』·『居家必用』 등은 『의방유취』에 인용된 내용을 중심으로 비교하였다.(표 2)

비교 원칙은 고려시대 의서의 문장과 같은 것을 기본으로하여 주치증이 비슷한 것, 약물의 복용법과 치료법이 약간 다른 것은 포함시켰고, 처방의 구성약물중 약간의 加減이 있는 것도 포함시켰다. 고려 의서의 내용중 한 처방에 2-3개의 중국의서와 같이 비교되는 것도 허용하여 정리하였다.(표 2)

고려 의서들을 중국의서와 비교한 것은 전체 436개 처방이다. 唐代 의서는 10.8%, 宋代 의서는 28.7%, 明代 의서는 2.1%, 기타 의서들과는 58.5%가 비교되었다. 고려 의서들은 唐代와 明代 의서보다는 宋代 의서에 많은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³⁰⁾ 기타의서들중에는 송대 의서

가 상당히 포함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기타 의서들중에서 『향약집성방』에 인용된 의서들은 『식의식감』·『쇄쇄록』·『영류점방』·『연하성효방』·『경험양방』·『거가필용』인데, 『향약집성방』이 1398년에 저술된 『향약제생집성방』을 기본서로하여 증보한 것이라 이 당시 고려시대에 수입된 중국 의서를 사용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 의서별 비율을 보면 『천금요방』은 3.2%, 『외대비요』는 7.6%, 『태평성혜방』은 14.0%, 『성제총록』은 9.0%, 『화제국방』은 3.0%, 『비예백요방』은 50.9%, 『위생간이방』은 3.7%를 차지한다. 『비예백요방』은 고려 의서들과의 비교비율이 50.9%라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저술시기가 밝혀져 있지 않으나³¹⁾ 고려시대에 널리 보급된 宋代 의서일 것으로 생각되는데, 자세히 알 수 없음이 아쉬울 뿐이다.

3.2. 고려 의서들의 구성

『향약집성방』, 『의방유취』와 『신편집성마의방』에 고려 의서들을 인용한 편들을 통해서 고려 의서들의 구성을 간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30) 孫弘烈 著, 위의 책, 143.에 宋은 중국의 歷代王朝 중에서도 특히 의학을 증시하였는데, 거란과 金을 견제하기 위해 高麗에 대해 우호적이었으며 高麗는 발달된 宋文化를 수입하기 위해 왕래를 빈번하게하여 醫員, 藥品 및 醫書의 교류도 상당히 이루어졌다고 하였다.

31) 李茂如·胡天福·李若鈞 編著, 『歷代史志書目著錄醫籍匯考』, 1版1刷.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4. 등과 같은 中國醫書目録를 찾아보았으나 『備預百要方』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다.

『향약집성방』과 『의방유취』의 질병 분류를 살펴보면, 『향약집성방』은 우선 전체적으로 外因이 되는 六淫(風寒·暑·濕熱)의 門이 있고, 다음으로 內傷病이라 할 수 있는 증상을 門으로 삼고(예: 瘧病·脚氣 등등, 단지 大小便과 脾胃門은 예외), 그 다음으로 婦人諸病·求嗣·胎教·妊娠疾病·坐月·產難·產後 등으로 분류한 婦人科疾病, 소아과질병은 小兒門이라고 크게 분류하고 그 안에 증상을 나누어 서술하고 있다. 『의방유취』는 먼저 오장에 대해 서술하고 다음으로 질병과 신체부위를 중심으로 한 분류가 섞여서 서술되고, 婦人門은 『향약집성방』에서 門으로 분류한 것을 다만 세분류한 것이 다르고, 小兒門은 『향약집성방』과 같다. 이러한 질병분류는 송대 의서들의 질병분류와 비슷하다.³²⁾ 이는 고려 의서들이 송대 의서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향약집성방』은 전체 57門중 고려 의서를 인용한 곳이 모두 44門으로 77.2%를 차지하고, 『의방유취』는 전체 91문중에 『어의촬요』를 인용한 곳이 모두 26門으로 28.6%를 차지한다.〈표 3〉

宋代 의서에 영향을 받은 조선시대 초기의 『향약집성방』과 『의방유취』에 인용된 고려 의서들의 질병인식이 중국의 질병인식 수준과 거의 같음을 나타낸다. 〈표 3〉 또한, 질병 분류에 있어서도 『태평성혜방』·『태평혜민화제국방』·『성제총록』³³⁾과 비슷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32) 甄志亞 主編; 傅維康 副主編, 『中國醫學史』, 『太平聖惠方』條, 1版1쇄.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1: 224.를 참조.

33) ① 『太平聖惠方』의 구성

이러한 증상의 인식과 분류상에 비슷한 것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고려 의서들의 구성 또한 중국 의서들의 구성과 비슷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鄉藥 내용도 담고 있어 고려말에서 조선시대까지 이어지는 향약캠페인과 독자적인 우리나라 의약수립에 기여했을 것으로 보인다.

3.3. 고려 의서들의 특징

권1-2: 叢論부분으로 診法 및 處方 用藥 등의 일반적인 논술; 권3-7: 虛·實·風·冷·熱 등을 論證의 總領으로하여 五臟六腑의 病과 治方을 論; 권8-18: 傷寒·時氣·熱病 및 그 治方을 論; 권19-31: 風病과 勞病을 論; 권32-37: 眼·口·齒·咽喉·耳·鼻 등 病을 論; 권38-49: 服石과 解毒; 권50-59: 頭面·胸腹 및 脚氣·霍亂·消渴·水病·黃疸·淋痢 등 雜病을 論; 권60-68: 痔·瘻·皮膚·癰瘡·損傷 등 外科病; 권69-81: 婦人病; 권82-93: 小兒病으로 되어 있다. (洪元植, 『中國醫學史』,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4: 152.)

② 『太平惠民和劑局方』의 구성

권1: 治諸風(附 脚氣); 권2: 治傷寒; 권3: 治一切氣(附 積聚脾胃); 권4: 治痰飲(附 咳嗽); 권5: 治諸虛(附 骨蒸); 治癰冷(附 消渴); 권6: 治積熱·治瀉利(附 秘澀); 권7: 治眼目疾·治咽喉口齒; 권8: 治雜病·法製熟艾主灸百病·治瘡腫傷折; 권9: 治婦人諸疾(外有治療諸方互見各類)·產圖; 권10: 治小兒諸疾·指南總論 卷上·中·下(陳師文等 奉勅撰, 『太平惠民和劑局方』(권2), 『中國醫學大系』(9권), 서울: 驪江出版社, 1987.)

③ 『聖濟總錄』의 구성

권1-2: 각각 上中下 3권으로 나누었고 60년 運氣圖를 나열하였으며; 권3-4: 總論으로 補遺와 治法·다음에 藥品·湯散·禁忌·鍼灸·符禁 등 18論; 권5-40: 諸風·諸痺·傷寒·中喝·瘧病·霍亂; 권41-54: 五臟六腑病; 권55-100: 心痛·消渴·黃疸 등 雜病; 권101-124: 面·體·顏·耳·鼻·口病; 권125-145: 癰瘡·癰疽·癰疽·瘡腫·金瘡·痔瘻·傷折 등 外科病; 권146-149: 中毒·蟲獸傷·橫死 등 雜療方; 권150-166: 婦人門(婦人·妊娠·逆產·產後); 권167-182: 小兒門; 권183-190: 乳石·補益·食治; 권191-194: 鍼灸門; 권195-200: 符禁 및 神仙服餌(洪元植, 위의 책, 153.)

3.3.1. 『제중입효방』

『향약집성방』 「풍문」 「중풍반신불수」에 “治偏風手足不隨疼痛 松葉五斗許 鹽二升 ○ 右蒸熱盛俗中 熨之 冷則更蒸 以差爲度.”³⁴⁾라고 되어 있다. 김두종은 『외대비요』의 『천금방』을 인용한 “偏風, 積年不瘥” 등을 치료하는 처방중에 “青松葉의 汁과 淸酒를 혼합하여 내복하는 방법”³⁵⁾과 비교하여 외용적 방법의 처방은 없다고 하고, 또한 『성제총록』에서는 비슷한 처방을 볼 수 없다고하여 이 처방은 『외대비요』에 인용된 『천금방』의 송엽을 채택하면서 치료 방법에 있어서 독자성을 발휘한 것이라고 하였다.³⁶⁾

『비에백요방』에 “『備預百要方』 又中風, 半身不遂, 手足不仁方. 松葉生搗, 鹽相和, 盛袋蒸之, 熱熨不至傷肌, 冷易, 日五六度.”³⁷⁾라고 하고, 또 『향약구급방』에도 『비에백요방』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 3가지 내용을 비교하면 『향약구급방』과 『비에백요방』의 내용은 같고 『제중입효방』과는 약간 차이가 있다. 『향약구급방』·『비에백요방』과 『제중입효방』은 처방 구성약물과 치료법(熨法)은 비슷하고, 다만 처방 구성약물의 양을 『비에백요방』·『향약구급방』에서는 밝히지 않았는데, 『제중입효방』에서는 “송엽5두

34) “偏風에 의한 手足不隨와 疼痛을 치료하는 處方. 松葉 5斗, 鹽 2升. 以上을 같이 찢서 뜨거운 것을 자루에 넣어 患處를 찜질하며, 식으면 다시 찢서 치유될 때까지 계속한다”. (俞孝通·盧重禮·朴允德 撰, 위의 책(3책), 103.)

35) “『千金』…… 療偏風積年不瘥, 手脚枯細, 口面喎僻, 精神不足, 言語倒錯方. …… 又方. 青松葉一斤, 搗令汗出, 淸酒一斗, 漬二宿, 近火一宿, 初服半升, 漸至一升, 頭面汗即止. 并出第八卷中.” (王燕 撰; 高文鑄 校注, 『外臺備要方』, 1판1쇄. 北京: 華夏出版社, 1993: 264.)

36) 金斗鍾 著, 위의 책, 137.

37) 金禮蒙 等編, 浙江省中醫研究所·湖州中醫學院 校, 『醫方類聚』(1책),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656.

와 염2승"이라고 밝혀져 있고 주치증에서도 "중풍"과 "편풍"의 차이만이 있다. 이는 김두종이 비교한 『외대비요』에서 인용한 『천금방』의 내용보다 『제증입효방』에 더욱 가깝다. 『제증입효방』과 『비에백요방』이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인용하여 새롭게 변화시킨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도리어 『비에백요방』은 『제증입효방』보다 늦게 저술된 『향약구급방』과 더욱 비슷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증입효방』은 고려의학의 독자적인 것으로 보는 김두종의 견해는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3.3.2. 『御醫撮要』

『향약집성방』에 12조문 12개의 처방이, 『의방유취』에는 26조문 88개의 『어의촬요』 처방이 들어있다. 또 중국 의서와 비교되지 않는 처방은 모두 55개였다.

『어의촬요』를 다음과 같은 면에서 살펴보았다.

① 『향약집성방』과 『의방유취』의 인용 내용의 비교

② 『의방유취』에 인용된 이름만 있는 처방

③ 『韓國醫學史』의 관련 내용 비판

1) 『향약집성방』과 『의방유취』의 인용 내용의 비교

『향약집성방』과 『의방유취』의 인용 내용이 중복되는 것은 모두 6개 처방이다. 『향약집성방』의 내용을 중심으로 『의방유취』의 것을 比較하였다.

1) 人蔘丸 鎮心安神 ① 化痰利胸膈 療驚 ② 人蔘去蘆頭 遠志去心 茯苓 生乾地黄各一兩 ○ 右爲末 ③ 用棗肉杵和丸 如桐子大 每服十五丸

生薑 ④ 薄荷湯下 不計時 ⑤.

① 『의방유취』 「驚悸門」에는 "主鎮心安神"으로 되어 있다.

② 『의방유취』 「경계문」에는 "療驚悸"로 되어 있다.

③ 『의방유취』 「경계문」에는 "右件爲末"로 되어 있다.

④ 『의방유취』 「경계문」에는 "生薑"으로 되어 있다.

⑤ 『의방유취』 「경계문」에는 "不計時候"로 되어 있다.

2) 『御醫撮要』 ① 理心腹痛 乾薑 吳茱萸 白頭翁 白附子 牡蠣 當歸 芍藥 黃芩 椒子 狼牙各二分 ② 右爲末 煉蜜和 ③ 丸 如桐子大 每服三十丸 粥飲下 ④.

① 『의방유취』 「心腹痛門」에는 "五驚丸"이 기재되어 있다.

② 『의방유취』 「심복통문」에는 "各三分"으로 되어 있다.

③ 『의방유취』 「심복통문」에는 "爲"로 되어 있다.

④ 『의방유취』 「심복통문」에는 "粥下"로 되어 있다.

3) 御醫撮要〔皂莢丸〕治咳嗽 皂莢灸去皮弦子 葶藶子微炒各三兩 杏仁去皮尖一兩 右細末 煉蜜爲丸 如桐子大 每服七丸至十丸 食後 米飲下.

『의방유취』 「咳嗽門」에는 처방명만이 기재되어 있다.

4) 『御醫撮要』 ① 治 ② 脾胃氣弱 ③ 不能食 腹內冷氣 脹悶 厚朴塗薑汁灸微烟出 ④ 陳皮

⑤ 白朮各三兩 ⑥ 人蔘一兩 ○ 右爲散 ⑦ 每服一錢 ⑧ 水一盞 生薑一錢 ⑨ 拍碎 同煎至六分去滓 溫服不拘時 ⑩ 忌桃李雀肉大蒜.

① 『의방유취』 「脾胃門」에는 “厚朴湯”이 기재되어 있다.

② 『의방유취』 「비위문」에는 “療”로 되어 있다.

③ 『의방유취』 「비위문」에는 “弱”이 없다.

④ 『의방유취』 「비위문」에는 “厚朴去粗皮二兩 涂生姜汁 炙微烟出”로 되어 있다.

⑤ 『의방유취』 「비위문」에는 “陳橘皮湯浸去白炒二兩”으로 되어 있다.

⑥ 『의방유취』 「비위문」에는 “白朮二兩”으로 되어 있다.

⑦ 『의방유취』 「비위문」에는 “右件爲散”으로 되어 있다.

⑧ 『의방유취』 「비위문」에는 “每服二錢”으로 되어 있다.

⑨ 『의방유취』 「비위문」에는 “生薑一分”으로 되어 있다.

⑩ 『의방유취』 「비위문」에는 “溫溫不以時服之”로 되어 있다.

5) 御醫撮要 荊芥湯 治 ① 牙齒風疼痛 不可忍 荊芥十穗 川椒七粒 鹽一分 ○ 右 ② 先以鹽於 ③ 銚子中炒 以水三大盞 同 ④ 煎十餘沸 熱含冷吐 忌猪魚醬蒜麪 ⑤ 醋.

① 『의방유취』 「齒門」에는 “療”로 되어 있다.

② 『의방유취』 「치문」에는 “右件”으로 되어 있다.

③ 『의방유취』 「치문」에는 “于”로 되어 있다.

④ 『의방유취』 「치문」에는 “用”으로 되어 있다.

⑤ 『의방유취』 「치문」에는 “麵”으로 되어 있다.

6) 御醫撮要 [艾葉煎丸] 治 ① 理冷勞臍腹疼痛 或時泄痢 兼理婦人下經病帶下 艾葉四兩炒 當歸一兩剉微炒 乾薑 ② 一兩炮 ○ 右爲細末 ③ 醋 ④ 三升 入藥末一半 熬成膏 後入餘藥末 相和 丸 如梧 ⑤ 桐子大 每服三十丸 溫粥飲下 空心食前 ⑥.

① 『의방유취』 「雜病門」에는 “治”가 없다.

② 『의방유취』 「잡병문」에는 “姜”으로 되어 있다.

③ 『의방유취』 「잡병문」에는 “右件爲末”로 되어 있다.

④ 『의방유취』 「잡병문」에는 “微炒”로 되어 있다.

⑤ 『의방유취』 「잡병문」에는 “梧”가 없다.

⑥ 『의방유취』 「잡병문」에는 “空心食前服”으로 되어 있다.

위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면, 『향약집성방』과 『의방유취』의 내용은 크게 다른 것은 없다. 약간의 차이가 나는 것은 『향약집성방』과 『의방유취』의 저자들이 『어의촬요』를 인용하는데 편집 견해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2) 『의방유취』에 인용된 이름만 있는 처방

『의방유취』에 처방명만이 기록된 것이 모두 17개로, 「상한문」에 2개, 「해수문」에 3개, 「제허문」에 12개이다. 「상한문」에 나오는 처방은 “辟瘟神明丹”과 “三拗湯”이고, 「해수문」에는 “皂莢丸”·“洗壅湯”·“生犀丸”이고, 「제허문」에는 “杞菊丸”·“巴戟天丸”·“椒紅丸”·“補益石斛丸”·“鹿茸丸”·“黃耆丸”·“菴蓉丸”·“茯神丸”·“巴戟丸”·“楮實丸”·“鹿角膠煎”·“摩風膏”이다.

〈표 2〉의 분석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어의촬요』는 『태평성혜방』과 『화제국방』의 비교를

이 모두 39.1%로서 이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의 처방명만이 나와 있는 내용들을 『태평성혜방』과 『화제국방』을 중심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우선 『상한문』의 두 처방중에 “벽은신명단”의 처방을 두 책에서는 찾을 수가 없었다. “삼유탕”은 『화제국방』에 나와있는데, 아래와 같다.

“三拗湯 治感冒風邪 鼻塞聲重 語音不出 或傷風傷冷 頭痛目眩 四肢拘攣 欬嗽多痰 胸滿氣短 麻黃不去節 杏仁不去皮尖 甘草生用各等分 右爲蠶末 每服五錢 水一盞半 薑五片 同煎 至一盞 去滓 通口服 以衣被益覆 睡取微汗爲度.”³⁸⁾

다음으로 『해수문』에 있는 “조협환”은 『향약집성방』에 그 처방내용이 있어 앞에 비교하였고, “세간탕”과 “생서환”은 두 의서에서 발견하지 못하였다.

『제허문』의 12개의 처방중 “기국환”·“파극환”은 발견하지 못하였고 나머지 처방에 대해 『태평성혜방』·『화제국방』과 『성제총록』에서 발견하였고, 아래와 같이 표로 정리하였다.〈표 4〉

『태평성혜방』에 전체 12개중 7개가 『화제국방』에는 3개 처방의 이름이 같은 것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초홍환”·“보익석곡환”·“복신환”·“저실환”·“마풍고”는 1개, “녹용환”·“중용환”·“녹각교전”은 2개, “황기환”·“복신환”·“파극환”은 3개의 처방이 있다. 특히 “마풍고”는 『태평성혜방』에서 풍증에 “마풍고”라는 처방의 편이 따로 있는데,³⁹⁾ 이는 그 당시에 “마풍고”가 보편적으로 응용되었기 때문에 선정된 것으로 보인다.

38) 陳師文等 奉勅撰. 위의 책, 519.

39) 王懷隱 等編. 『太平聖惠方』(1책). 北京: 平常心出版社, 1988: 175-178.에 “摩風膏”의 처방이 5개 이상이 보인다.

위의 처방중에 『향약집성방』에 “저실환”과 “녹각교전”이 나와 있는데, “저실환”은 『성제총록』조로, “녹각교전”은 『태평성혜방』의 「치오노육극철상통용제방」편에서 인용한 처방이 기재되어 있다.

위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어의촬요』 「제허문」은 『태평성혜방』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처방내용에 있어서는 중복되는 것이 많아 정확한 내용을 알기는 쉽지 않다.

3) 『한국의학사』의 관련 내용 비판

『향약집성방』과 『의방유취』에 인용된 『어의촬요』의 내용을 보면 약간의 차이점을 알 수 있다. 일단 『향약집성방』에 인용된 처방을 보면 丸과 湯의 제형이 대부분이고 3-4개의 약물로 처방이 구성되어 있는데 반해 『의방유취』의 처방의 형태는 丸과 末, 그 다음으로 湯劑이고, 약물수가 4-8개로 구성된 처방이 대부분이다. 특히 『의방유취』에 인용된 처방들중 15개 이상의 약물로 구성된 것도 7개나 있었다. 그리고 『어의촬요』의 처방들은 대부분 內服藥이었고, 이외에 貼傳·塗(몸에 약을 바르는 것)·含漱(탕제로 만든 탕액을 입에 머금은 방법)⁴⁰⁾ 등을 사용하는 처방들도 있었다.

『향약집성방』에 인용된 13개 처방중 7개가 중국 의서와 비교되고 있는데 반해, 『의방유취』

40) “荊芥湯 治牙齒風疼痛 不可忍. 荊芥十穗 川椒七粒 鹽一分 ○ 右先以鹽於銚子中炒 以水三大盞 同煎十餘沸 熱含冷吐 忌猪魚醬蒜麪醢. (風齒가 참을 수 없이 아픈 症狀을 치료한다. 荊芥 10穗, 川椒 7粒, 鹽 1分. 먼저 소금을 냄비에 넣고 볶아서 물 3盞(大)에 나머지 약과 같이 넣고 10餘回 끓여오르게 달인 다음 뜨거운 것을 입에 물고 있다가 식으면 뱉아 버린다. 약을 쓸 때 돼지고기·물고기·醬·마늘·국수·식초 등은 기한다.) (俞孝通·盧重禮·朴允德 撰. 위의 책(4책) 『어의촬요』, 688.)

에 인용된 88개의 처방중 처방명만 있는 17개를 제외한 71개의 처방중 13개의 처방만이 비교되고 있는 것을 볼 때, 도리어 『의방유취』에 인용된 내용들이 더욱 자주적인 처방인 것으로 생각된다.

김두중은 『향약집성방』 「경계문」에 있는 정지환⁴¹⁾의 구성약물과 주치증을 『외대비요』 「풍경계증」과 비교하여 그 약제의 조제방법과 배합의 분량이 일치되지 않은 것이 많다고 하였는데,⁴²⁾ 오히려 『비급천금요방』의 定志小丸⁴³⁾과 비교하면 주치증은 약간 다르나 약물의 조제방법과 배합의 분량은 일치하고 있다.

또 김두중이 예로 든 「수중문」의 처방에⁴⁴⁾

41) “定志圓 治以志不定 精神恍惚 善驚數恐 常多 忪悸 久服 益心強志 令人不忘 菖蒲 遠志去心各二兩 茯苓 人參各三兩 ○ 右細末 煉蜜爲丸 如梧子大 每服十丸 空心人參湯下 常服 鎮益心神 千金 加茯苓 名茯苓丸 服之亦佳. (定志圓: 마음(志)이 안정되지 않고 精神이 恍惚하면서 잘 놀라고 무서워하며 늘 가슴이 두근거리는 症狀를 치료한다. 오랫동안 服用하면 心을 補하고 의지를 굳세게 하며 健忘症을 除去한다. 石菖蒲, 遠志(去心) 各 2兩, 茯苓, 人參 各 3兩. 以上을 곱게 가루내어 煉蜜로 반죽하여 梧子 크기로 丸을 지어 每回 10丸씩 空腹에 人參湯으로 服用한다. 常服하면 마음과 정신이 안정된다. 『千金方』에는 茯苓을 더 넣어 服用하면 좋다 하고 처방이름을 茯苓丸이라고 했다.)” (俞孝通·盧重禮·朴允德 撰. 앞의 책(3책) 『어의촬요』, 637.)

42) 金斗鍾 著. 위의 책, 138.

43) “定志小丸. 主心氣不定. 五藏不足. 甚者憂愁悲傷不樂. 忽忽喜忘. 朝差暮劇. 暮差朝發狂眩方. 菖蒲 遠志各二兩 茯苓 人參各三兩. 右四味末之. 蜜丸飲服如梧子大. 七丸. 日三. 加茯苓爲茯苓丸 散服亦佳.” (孫思邈 著. 『備急千金要方』 권14 「小腸腑」 「心風驚悸第七」, 1版1刷. 北京: 華夏出版社, 1993: 265.)

44) “治十種水病 極甚腫從脚氣入腹 證候雖惡 大戟半兩剉微炒 當歸一兩微炒 陳皮一兩湯浸去白焙 右搗羅爲散 每服五錢 水二大鍾 煎至一鍾 去滓 隨臥 空心溫服. (열가지 水腫病으로 심하게 부었는데 다리에서부터 붓기 시작하여 배로 올라 왔으며 證候가 몹시 나쁜 것을 치료하는 處方. 大戟(剉微炒) 半兩, 當歸(微炒) 1兩, 陳皮(湯浸去白焙) 1兩.

대해 『성제총록』에는 大戟이외에도 甘遂같은 약물이 첨가되어 있다고 서술하고 있는데,⁴⁵⁾ 이는 김두중이 이 처방의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대극 한 약물만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설명하고 있으나 大戟·當歸·陳皮 등의 약물을 사용하였고 또한 이 처방과 같은 내용이 『태평성혜방』⁴⁶⁾에 나와있다. 그리고 『어의촬요』의 “산후유즙불통증”에 있는 처방⁴⁷⁾을 『외대비요』와 『성제총록』과 비교하여 土瓜根으로 되어 있고, 王不留行이 없다고 서술하고 있으나, 이 처방은 『태평성혜방』에 같은 처방이⁴⁸⁾ 나와있다.

3.3.3. 『鄉藥古方』

『향약고방』에 대해서는 『향약집성방』의 「歷節風及諸般風疾」·「咳嗽上氣」·「赤白痢」·「腹風腹痔下血」 등에 1개씩의 조문에 7개의 처방이 인용되었다. 모두 내복약이고, 4개의 처방만이 단방이다. 『향약고방』의 내용중 『향약집성방』의

以上을 가루내어 每回 5錢씩을 물 2鍾鉢에 달여 1鍾鉢이 되면 찌꺼기를 짜 버리고 잔알 무렵과 空腹에 服用한다.” (俞孝通·盧重禮·朴允德 撰. 위의 책(3책) 『어의촬요』, 792.)

45) 金斗鍾 著. 위의 책, 138.

46) “治十種水病. 極甚. 腫從脚起入腹. 證候雖惡. 宜服此方. 大戟半兩剉碎微炒 當歸一兩剉微炒 陳橘皮一兩湯浸去白瓤焙. 右件藥. 搗篩爲散. 每服五錢. 以水一大盞. 煎至五分. 去滓. 夜臨臥腹空時溫服.” (王懷隱 等編. 위의 책(권54) 「治十水腫諸方」(3책), 1660.)

47) “治產後乳汁不通 王不留行 土瓜根各一兩 ○ 右細末 不計時 熱酒調下二錢. (產後에 젖지 나오지 않는 症狀를 치료하는 處方. 王不留行, 土瓜根 各 1兩. 以上을 곱게 가루내어 每回 2錢씩 수시로 뜨거운 술에 타서 服用한다.)” (俞孝通·盧重禮·朴允德 撰. 위의 책(6책) 『어의촬요』, 586-587.)

48) “治產後乳汁不通. …… 又方. 王不留行 土瓜根以上各一兩. 右件藥. 搗細羅爲散. 不計時候. 以熱酒調下二錢.” (王懷隱 等編. 위의 책(권81) 「治產後乳無汁下乳汁諸方」(4책), 2561.)

『歷節風及諸般風疾』에 있는 처방과 「咳嗽上氣」 중 萊菔子를 이용한 처방을 제외한 3개의 처방은 중국의서와 비교할 수 없었다. 4개의 조문내용은 다음과 같다.

『歷節風及諸般風疾』에 있는 「虎脛骨酒」는 다음과 같다.

“治歷節風 及諸般風疾 虎脛骨槌碎一兩半 牛膝去蘆頭細剉五兩 五加皮細切三兩 獨活細剉二兩 ○ 右以俗盛 好酒二瓶浸 春五夏三秋七冬十日 每朝夕 溫服一鍾 其滓細末 服三錢 溫酒 點服 空心 食前 忌牛肉乳”⁴⁹⁾

이에 대해 김두중은 『성제총록』에도 응용되었으나 그 술의 제조방법과 원료약재의 배합에서 일치하고 있지 않다⁵⁰⁾고 하였다. 이는 『태평성혜방』과 『화제국방』도 마찬가지로, 당시에는 역절풍과 제반 풍질에 호경골이 많이 응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약물구성과 약재의 제조방법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虎脛骨酒”는 고려의 처방인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 「해수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治咳嗽上氣 淡竹葉濃煮 食後溫服〔又方〕桑白皮四兩 杏仁一兩 右水七升 煮取二升 分二服 未差更作〔又方〕萊菔者一合細研 作湯 食後服”⁵¹⁾

49) “虎脛骨酒：歷節風과 여러 가지 風病을 치료한다. 虎脛骨(槌碎) 1兩半, 右膝(去蘆頭細剉) 5兩, 五加皮(細切) 3兩, 獨活(細剉) 2兩. 以上을 주머니에 넣어 술 2瓶에 담가 두는데 봄에는 5일, 여름에는 3일, 가을에는 7일, 겨울에는 10일 동안 담가 둔다. 이 술을 매일 아침 저녁 1鍾씩 溫服한다. 찌꺼기는 곱게 가루내어 每回 3錢씩 溫酒에 타서 아침 空腹과 食前에 服用하며, 牛肉과 牛乳는 忌한다”(俞孝通·盧重禮·朴允德 撰. 위의 책(3책) 『향약고방』, 109.)

50) 金斗鍾 著. 위의 책, 155.

51) “咳嗽上氣의 症狀을 치료하는 處方. 淡竹葉을 진하게 달여 食後에 溫服한다. 又方. 桑白皮 4兩, 杏仁 2兩, 以上

위의 내용에서 咳嗽上氣를 치료하는 처방이 3개가 나오는데, 그 중 萊菔子를 사용한 처방은 『성제총록』⁵²⁾과 『위생이간방』⁵³⁾에 나오는데, 내용으로 보아서는 오히려 『위생이간방』의 것과 비슷하다.

세 번째로 「赤白痢」에 나오는 橡實散의 처방은 다음과 같다.

“治赤白痢 橡實 乾薑各二兩 ○ 右爲散 每服二錢 以粥飲調下”⁵⁴⁾

위의 처방을 『태평성혜방』⁵⁵⁾의 처방과 비교하면 약물의 배합량이 다를 뿐이다.

마지막으로 「腸風下血」에 있는 처방은 아래와 같다.

“治腸風 腸痔下血 栗殼煮汁 服 又常服黃蘗末”⁵⁶⁾

위의 내용에 처방이 2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처방은 『비예백요방』⁵⁷⁾과 거의 동일하고, 두

을 물 7升에 달여 2升이 되면 찌꺼기를 짜 버리고 2회에 分服한다. 낫지 않으면 다시 만들어 服用한다. 又方. 萊菔子(무우씨) 7合을 곱게 갈아 끓여서 食後에 服用한다.”(俞孝通·盧重禮·朴允德 撰. 위의 책(4책) 『향약고방』, 302.)

52) “治肺嗽. 萊菔丸方. 萊菔子半升淘擇焙乾炒黃. 右一味. 搗羅爲末. 以沙糖丸如彈子大. 綿裹含化.”(趙倍撰. 『聖濟總錄』 권65 「咳嗽門」, 「五藏諸咳」(상권). 1版4刷.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2: 1190.)

53) “治積年上氣, 咳嗽多痰, 喘促, 唾膿及血不止. 用蘿卜子一合, 搗碎, 水煎去滓, 食後服之, 大妙.”(金禮蒙 等編. 위의 책 「咳嗽門」, (권120, 책6) 『衛生易簡方』, 203.)

54) “〔橡實散〕. 赤白痢를 치료한다. 橡實, 乾薑 各 2兩. 以上을 가루내어 每回 2錢씩 미음에 타서 服用한다.”(俞孝通·盧重禮·朴允德 撰. 위의 책(4책) 『향약고방』, 9.)

55) “治久赤白痢. 日夜不止. 橡實散方. 橡實一兩 乾薑一兩炮裂剉. 右件藥. 搗細羅爲散. 每服. 不計時候. 以粥飲調下二錢.”(王懷隱 等編. 위의 책(권59) 「治久赤白痢諸方」(3책), 1830.)

56) “腸風과 腸痔로 下血하는 證상을 치료하는 處方. 栗殼를 물에 달여 服用한다. 또는 黃蘗末을 常服한다.”(俞孝通·盧重禮·朴允德 撰. 위의 책(5책) 『향약고방』, 31.)

57) “腸風腸痔下血方. …… 又栗殼煮汁服之.”(金禮蒙 等

번제는 주치증과 약물구성에서 『태평성혜방』⁵⁸⁾과 약간 다르나 주제인 “黃蘗”이 같아 비교하였다.

3.3.4. 『鄉藥救急方』

『향약집성방』에 인용된 『향약구급방』 31조문에 대해서만 분석하려고 한다.

신영일이 復原한 본과 『향약집성방』에 인용된 내용을 비교하고 『한국의학사』에 나와있는 내용을 제검토하였다.

1) 복원본과 31조문 비교

여기서 { }는 『향약집성방』에 음각으로 된 것을 표시한 것이고 “復原本”은 신영일이 복원한 것⁵⁹⁾을 말한다. 또한 일련번호는 『향약집성방』에 인용된 것을 그 순서대로 기입한 것이다.

1) {鄉藥救急方} 治 ①理皮膚風痒 蒺藜葉 煮湯浴之 ③

① 復原本 『향약구급방』 「丹毒癰疹方」에는 “治”가 없다.

② 복원본 『향약구급방』 「단독은진방」에는 “煮蒺藜葉”으로 되어 있다.

③ 복원본 『향약구급방』 「단독은진방」에는 “浴之 良”으로 되어 있다.

2) 鄉藥救急 治瘡病 ①柴胡根煮 ② 臨發 ③ 時 ④ 服之 ⑤

① 복원본 『향약구급방』 「瘡疾」에는 없다.

編. 위의 책 「痔瘻門3」(권184, 책8) 『備預百要方』, 580.)

58) “治久赤白痢不差. 羸困. …… 又方. 黃蘗三兩微炙剉搗羅爲末. 右煨獨頭蒜令熟擗. 圓如梧桐子大. 每服. 不計時候. 以粥飲下二十圓.”(王懷隱 等編. 위의 책(권59) 「治久赤白痢諸方」.(3권), 1831.)

59) 申榮日. 위의 논문.

② 복원본 『향약구급방』 「학질」에는 “單煮柴胡 鄉名青玉菜 或云猪矢水乃位根”으로 되어 있다.

③ 복원본 『향약구급방』 「학질」에는 “不論多少 隨意飲之 臨發”로 되어 있다.

④ 복원본 『향약구급방』 「학질」에는 “飲及欲差時”로 되어 있다.

⑤ 복원본 『향약구급방』 「학질」에는 “飲 卽效”로 되어 있다.

3) 鄉藥救急 治脚腫 心腹脹滿 大小便不通 冬麻子半升炒 搗研水濾取汁 米二合 ○ 右和作粥 空心食之

4) {鄉藥救急方} 理消渴 卒小便大數 非淋 令人瘦 ① 猪脂不中水者 ② 如雞子許 灸之 ③ 下取汁 服盡此方 并療遺尿

① 복원본 『향약구급방』 「消渴」에는 “令人瘦方”으로 되어 있다.

② 복원본 『향약구급방』 「소갈」에는 “以不中水猪脂”로 되어 있다.

③ 복원본 『향약구급방』 「소갈」에는 “灸之”로 되어 있다.

5) {鄉藥救急方} 療水腫 ① 大麻子 ② 二升以文火炒 總 ③ 爆一聲 便反(?) ④ 童子小便三升 良久 分爲二服 服訖脫襪 垂兩足 以盆承之 須臾 ⑤ 兩足中指 各然 ⑥ 有聲 甲中綻裂 一身水腫者 ⑦ 此瀝盡 ⑧ 此方出於唐書 盧堂傳 忽有神人傳

① 복원본 『향약구급방』 「水腫」에는 “經效療水腫方”으로 되어 있다.

② 복원본 『향약구급방』 「수종」에는 “鄉名與乙”로 되어 있다.

③ 복원본 『향약구급방』 「수종」에는 “纔”로 되어 있다.

④ 복원본 『향약구급방』 「수종」에는 “便沃”으로 되어 있다.

⑤ 복원본 『향약구급방』 「수종」에는 “須臾”로 되어 있다.

⑥ 복원본 『향약구급방』 「수종」에는 “髡然”으로 되어 있다.

⑦ 복원본 『향약구급방』 「수종」에는 “一身水腫”으로 되어 있다.

⑧ 복원본 『향약구급방』 「수종」에는 “自此瀝盡”으로 되어 있다.

6) 鄉藥救急方 治 ①小便不通 葵子 ②半升以 ③水三升 煮取二升 去滓 ④ 分爲二服〔又方〕牽牛子 ⑤細末 熱茶清調二錢服

① 복원본 『향약구급방』 「小便不通」에는 없다.

② 복원본 『향약구급방』 「소변불통」에는 “用葵子”로 되어 있다.

③ 복원본 『향약구급방』 「소변불통」에는 없다.

④ 복원본 『향약구급방』 「소변불통」에는 없다.

⑤ 복원본 『향약구급방』 「소변불통」에는 “牽牛子出上”으로 되어 있다.

7) 〔鄉藥救急方〕 治淋 ① 及小便常不利 陰中痛 日數十起 此皆虛勞熱所致 ② 石韋去毛 滑石 ③ 瞿麥 ④ 車前子 ⑤ 葵子各二兩 ○ 右擣篩 ⑥ 以飲⑦服方寸匕 日三〔又方〕葵子五合 茯苓二兩 ○ 右 ⑧以水五升 煮取三升 分三服

① 복원본 『향약구급방』 「淋疾」에는 “理諸淋”으로 되어 있다.

② 복원본 『향약구급방』 「임질」에는 “此皆勞損虛熱所致”로 되어 있다.

③ 복원본 『향약구급방』 「임질」에는 “滑石膏石”으로 되어 있다.

④ 복원본 『향약구급방』 「임질」에는 “瞿麥出上”으로 되어 있다.

⑤ 복원본 『향약구급방』 「임질」에는 “車前子出上”으로 되어 있다.

⑥ 복원본 『향약구급방』 「임질」에는 “右五物擣篩”로 되어 있다.

⑦ 복원본 『향약구급방』 「임질」에는 없다.

⑧ 복원본 『향약구급방』 「임질」에는 없다.

8) 〔鄉藥救急方〕 治癰 ① 桃仁 ② 炒令黃熟 細研 ③ 酒服 如彈丸 ④

① 복원본 『향약구급방』 「陰癰陰瘡」에는 “理癰方 熟擣桃仁桃核之實 付之 亦理婦人陰腫”으로 되어 있다.

② 복원본 『향약구급방』 「음퇴음창」에는 “又桃仁”으로 되어 있다.

③ 복원본 『향약구급방』 「음퇴음창」에는 “細末”로 되어 있다.

④ 복원본 『향약구급방』 「음퇴음창」에는 “如彈丸 姚云 不過三”으로 되어 있다.

9) 〔鄉藥救急方〕 治 ①中寒 心腹痛 酒一盞 ② 置熨斗 ③中 火上溫 飲隨人所飲 令微有醉氣 治 ④心腹痛 當歸 ⑤ 白芍藥 ⑥ 右等分 蠶末 每服六錢 以水一椀 ⑦ 煎至七分 ⑧ 去滓 溫服 日三四 ⑨

① 복원본 『향약구급방』 「心腹痛」에는 “理”로 되어 있다.

② 복원본 『향약구급방』 「심복통」에는 “以酒一盞”으로 되어 있다.

③ 복원본 『향약구급방』 「심복통」에는 “置熨

斗多里甫里”로 되어 있다.

④ 복원본 『향약구급방』 「심복통」에는 없다.

⑤ 복원본 『향약구급방』 「심복통」에는 “當歸黨歸菜”로 되어 있다.

⑥ 복원본 『향약구급방』 「심복통」에는 “白芍藥根”으로 되어 있다.

⑦ 복원본 『향약구급방』 「심복통」에는 “以水一燒”으로 되어 있다.

⑧ 복원본 『향약구급방』 「심복통」에는 “煎之七分”으로 되어 있다.

⑨ 복원본 『향약구급방』 「심복통」에는 “日三四服”으로 되어 있다.

10) [鄉藥救急方] 藍漆去莖葉細末 每服三錢 酒調 飽食後 頓服

11) [鄉藥救急] 治 ①食噎 ② 棧子嚼下 ③ 以棧子開胃 甚驗故也 [又方] ④ 大蒜削 ⑤ 內鼻中 卽下

① 복원본 『향약구급방』 「食噎方」에는 없다.

② 복원본 『향약구급방』 「식일방」에는 “食噎使兩人提耳 吹兩耳 卽下”로 되어 있다.

③ 복원본 『향약구급방』 「식일방」에는 “又嚼下棧子”로 되어 있다.

④ 복원본 『향약구급방』 「식일방」에는 “又”로 되어 있다.

⑤ 복원본 『향약구급방』 「식일방」에는 “削大蒜”으로 되어 있다.

12) [鄉藥救急方] 治衄血 ① 蒲黃 ② 末 吹入鼻中 ③ 卽止 [又方] 大蒜切 ④ 隨左右鼻衄 磨掌中 ⑤ 良

① 복원본 『향약구급방』 「鼻衄」에는 “鼻衄方”

으로 되어 있다.

② 복원본 『향약구급방』 「비축」에는 “蒲黃 鄉名蒲槌上黃粉”으로 되어 있다.

③ 복원본 『향약구급방』 「비축」에는 “吹入鼻”로 되어 있다.

④ 복원본 『향약구급방』 「비축」에는 “斷大蒜”으로 되어 있다.

⑤ 복원본 『향약구급방』 「비축」에는 “摩掌中”으로 되어 있다.

13) [鄉藥救急] 治頭風裂痛 香附子爲末 每服三錢 臘茶調下 食後 日三五服

14) [鄉藥救急方] 治眼風赤 ① 黃蘗皮 竹葉 各五錢 ② 古銅錢五枚 ○ 右用水半碗 ③ 內鹽少許 濃煎 綿濾去滓 洗眼 洗眼暴赤澀痛 ④ 黃蘗皮一兩 桑白皮一握 ○ 右 ⑤ 以水三升 煎二升 ⑥ 去滓 ⑦ 澄清待冷 ⑧ 洗 ⑨

① 복원본 『향약구급방』 「眼」에는 “理眼風赤方”으로 되어 있다.

② 복원본 『향약구급방』 「안」에는 “各五錢”이 없다.

③ 복원본 『향약구급방』 「안」에는 “又用水煮”로 되어 있다.

④ 복원본 『향약구급방』 「안」에는 “理風毒暴赤 眼腫澀痛”으로 되어 있다.

⑤ 복원본 『향약구급방』 「안」에는 “右二物”로 되어 있다.

⑥ 복원본 『향약구급방』 「안」에는 “煎取二升”으로 되어 있다.

⑦ 복원본 『향약구급방』 「안」에는 “綿濾去滓”로 되어 있다.

⑧ 복원본 『향약구급방』 「안」에는 “待冷點之”

로 되어 있다.

⑨ 복원본 『향약구급방』 「안」에는 “以多爲也”로 되어 있다.

15) [鄉藥救急方] 療眼風淚出 ① 古錢 ② 一百五十文 漬苦酒一斗 微火 煎取三升 去錢 濾取汁 更煎取七合 漸漸 點着眥中 甚良

① 복원본 『향약구급방』 「眼」에는 “療眼風淚出方”으로 되어 있다.

② 복원본 『향약구급방』 「안」에는 “用古錢”으로 되어 있다.

16) [鄉藥救急方] 治 ① 纏喉風 及喉閉 飲食不通 欲死 ② 馬蘭花末 ③ 溫水服 方寸匕 以利爲度 ④ [又方] ⑤ 新馬屎 ⑥ 取汁 ⑦ 瀝喉中 治喉痺 ⑧ 炭火燒存性桃核 ⑨ 仍須不斷烟 一鍾 ⑩ 溫酒下 莫把 ⑪ 萬金傳 但能開口下 雖死 卽還生 ⑫

① 복원본 『향약구급방』 「喉痺」에는 없다.

② 복원본 『향약구급방』 「후비」에는 “欲死方”으로 되어 있다.

③ 복원본 『향약구급방』 「후비」에는 “又服蠡花 蠡則馬蘭也. 如菖蒲花 青紫色 處處道邊澤中有 曆書荔枝出者 是也”로 되어 있다.

④ 복원본 『향약구급방』 「후비」에는 “以利爲限”으로 되어 있다.

⑤ 복원본 『향약구급방』 「후비」에는 “又取”로 되어 있다.

⑥ 복원본 『향약구급방』 「후비」에는 “新馬矢”로 되어 있다.

⑦ 복원본 『향약구급방』 「후비」에는 “汁”으로 되어 있다.

⑧ 복원본 『향약구급방』 「후비」에는 “理喉閉

五言”으로 되어 있다.

⑨ 복원본 『향약구급방』 「후비」에는 “炭火燒桃核”으로 되어 있다.

⑩ 복원본 『향약구급방』 「후비」에는 “一錢”으로 되어 있다.

⑪ 복원본 『향약구급방』 「후비」에는 “莫抱”로 되어 있다.

⑫ 복원본 『향약구급방』 「후비」에는 “雖死卽時生”으로 되어 있다.

17) [鄉藥救急方] 治癰瘡 ① 蠶屎 ② 和童子小便 ③ 煎 塗之 [又方] ④ 猪皮白汁 ⑤ 取 ⑥ 塗之

① 복원본 『향약구급방』 「癰疥癩瘡」에는 “理癰瘡”으로 되어 있다.

② 복원본 『향약구급방』 「선개과창」에는 “又蠶矢”로 되어 있다.

③ 복원본 『향약구급방』 「선개과창」에는 “和小童小便”으로 되어 있다.

④ 복원본 『향약구급방』 「선개과창」에는 “又取”로 되어 있다.

⑤ 복원본 『향약구급방』 「선개과창」에는 “猪皮白汁”으로 되어 있다.

⑥ 복원본 『향약구급방』 「선개과창」에는 없다.

18) [鄉藥救急方] 治 ① 理蝮瘡 猪脂煮令香 ② 先傳瘡上 其虫皆出 用鶴虱 乾漆等 ③ 殺虫藥 貼之

① 복원본 『향약구급방』 「癰疥癩瘡」에는 없다.

② 복원본 『향약구급방』 「선개과창」에는 “煮猪脂令香”으로 되어 있다.

③ 복원본 『향약구급방』 「선개과창」에는 “乾漆 無莢等”으로 되어 있다.

19) [鄉藥救急方] 理惡瘡 兼理風丹 滿身如棗大 藜蘂擣傅之 ① 神驗

① 복원본 『향약구급방』 「惡瘡」에는 “擣藜蘂傅之”로 되어 있다.

20) [鄉藥救急方] 治 陰痒生瘡 胡麻子嚼傅之 ②

① 복원본 『향약구급방』 「陰癩陰瘡」에는 “又”로 되어 있다.

② 복원본 『향약구급방』 「음퇴음창」에는 “嚼胡麻子鄉名荏子 付之”로 되어 있다.

21) [鄉藥救急方] 治 ① 從高墮落 或因鬪搏 內有瘀血 故 ② 青布衣 若席緣青布 燒作灰 調冷水 服三錢 卽洞下 如未泄 再三服之 無不差

① 복원본 『향약구급방』 「墮損壓竿傷折打破」에는 없다.

② 복원본 『향약구급방』 「타손압착상절타파」에는 “用故”로 되어 있다.

22) 鄉藥救急方 治 ① 食葦葶星 中毒 ② 生葦少許 ③ 和油食之 癸丑年 家僮 摘葦燒於火中 戲云 食之味甘 一婢信之 食少許 ④ 又二婢在傍 ⑤ 取食些少 ⑥ 須臾三婢眩悶 一倒竇中 二入房 而倒 倉卒無藥 合食生葦 又喫與眞油一小滴 然後目開 ⑦ 渠云眩悶中 生葦入口 則一路冷徹咽中 始知有生理

① 복원본 『향약구급방』 「菌毒」에는 없다.

② 복원본 『향약구급방』 「군독」에는 “食葦星葦中毒”로 되어 있다.

③ 복원본 『향약구급방』 「군독」에는 “喫生葦小許”로 되어 있다.

④ 복원본 『향약구급방』 「군독」에는 “取食小許”로 되어 있다.

⑤ 복원본 『향약구급방』 「군독」에는 “又二婢

在旁”으로 되어 있다.

⑥ 복원본 『향약구급방』 「군독」에는 “取食小”로 되어 있다.

⑦ 복원본 『향약구급방』 「군독」에는 “然後目開 乃煮甘草飲之 然後甦”로 되어 있다.

23) 鄉藥救急方 治 ① 食白瀹戈灼 ② 余□二切 煮也 ③ 雞子過多取致 蘇一升 ④ 煮服 仍吐一物 如升涎裏之 能動 開看 是雞離羽翅 距具足能行走 未盡 ⑤ 更脹 ⑥ 取餘藥 ⑦ 又吐如向者 雞十三頭 而病都差 當時稱妙. 一云 蒜一升 煮服之.

① 복원본 『향약구급방』 「古傳錄驗方」에는 “治”가 없다.

② 복원본 『향약구급방』 「古傳錄驗方」에는 “食白瀹”으로 되어 있다.

③ 복원본 『향약구급방』 「古傳錄驗方」에는 “余□二切 煮也”가 없다.

④ 복원본 『향약구급방』 「古傳錄驗方」에는 “令取蘇一升”으로 되어 있다.

⑤ 복원본 『향약구급방』 「古傳錄驗方」에는 “澄曰此未盡”으로 되어 있다.

⑥ 복원본 『향약구급방』 「古傳錄驗方」에는 “更脹”이 없다.

⑦ 복원본 『향약구급방』 「古傳錄驗方」에는 “更服所餘藥”으로 되어 있다.

24) [鄉藥救急方] 治 ① 陰卒痛如刺 大汗出 ② 小蒜 ③ 一升 薤根 柳根各一斤 ○ 右 ④ 細切 ⑤ 酒 ⑥ 三升 煎令沸 乘熱氣熏洗之 ⑦

① 복원본 『향약구급방』 「陰癩陰瘡」에는 “理”로 되어 있다.

② 복원본 『향약구급방』 「음퇴음창」에는 “大汗出方”으로 되어 있다.

③ 복원본 『향약구급방』 「음퇴음창」에는 “以小蒜”으로 되어 있다.

④ 복원본 『향약구급방』 「음퇴음창」에는 “竝”으로 되어 있다.

⑤ 복원본 『향약구급방』 「음퇴음창」에는 “細剉”로 되어 있다.

⑥ 복원본 『향약구급방』 「음퇴음창」에는 “以酒”로 되어 있다.

⑦ 복원본 『향약구급방』 「음퇴음창」에는 “乘熱氣熏之”로 되어 있다.

25) [鄉藥救急方] 治難產 眞油二鍾 調木麥麪如稀糊 頓服 卽下 效 治難產 及胞衣不下 新牛屎塗產婦兩乳間 卽下 神驗 產下後 卽洗 遲則腸隨出 取新屎 法牛性 牽出則放屎 治難產 蓮花葉一片 書作人字 吞之 立則卽出 [又方] 大豆七枚 紅藍花 水煮取汁 溫服三鍾 卽下

26) [鄉藥救急方] 治子死腹中 蓮花葉燒灰 以水調下一錢 [又方] 以手執夫帶 去父入子 出如此二七遍 卽下

27) [鄉藥救急方] 治 ①小兒咳嗽 ② 好梨 ③一顆 刺作五十孔 每孔入眞椒一粒 以麪 ④水和作餅 裹梨外 用濕紙裹 兩重煨於燭灰中令熟 ⑤ 出停冷 去椒 令兒喫之 良

① 복원본 『향약구급방』 「小兒方」에는 없다.

② 복원본 『향약구급방』 「소아방」에는 “小兒卒咳嗽”로 되어 있다.

③ 복원본 『향약구급방』 「소아방」에는 “用好梨”로 되어 있다.

④ 복원본 『향약구급방』 「소아방」에는 “以麵”으로 되어 있다.

⑤ 복원본 『향약구급방』 「소아방」에는 “兩重煨於燭灰中令熟”으로 되어 있다.

28) [鄉藥救急方] 治 ①小兒黃病 百合根蒸過蜜和食之

① 복원본 『향약구급방』 「小兒方」에는 없다.

29) [鄉藥救急方] 小兒食酸齒齲 ① 初舉切齒傷醋 ② 胡桃肉細嚼 ③ 解之 ④

① 복원본 『향약구급방』 「小兒方」에는 “小兒食酸齒齲 齒所叱史如”로 되어 있다.

② 복원본 『향약구급방』 「소아방」에는 없다.

③ 복원본 『향약구급방』 「소아방」에는 “細嚼胡桃肉”으로 되어 있다.

④ 복원본 『향약구급방』 「소아방」에는 “解之. 鄉名唐楸子 今俗云楸子 亦非楸子 乃胡桃”로 되어 있다.

30) 鄉藥救急方 治 ①小兒浸淫瘡 東壁土 ② 細研 ③ 厚傅之 ④ 以止濕爲限 良 ⑤

① 복원본 『향약구급방』 「小兒方」에는 없다.

② 복원본 『향약구급방』 「소아방」에는 “東壁乾土末”로 되어 있다.

③ 복원본 『향약구급방』 「소아방」에는 없다.

④ 복원본 『향약구급방』 「소아방」에는 “厚傅之”로 되어 있다.

⑤ 복원본 『향약구급방』 「소아방」에는 “良. 以日光初出照壁處也”로 되어 있다.

31) 鄉藥救急方 治 ①脫肛不縮 生韭 ②一斤 細切 酥拌炒熟分兩 以軟帛裹熨之 ③ 冷則易 以入爲度

① 복원본 『향약구급방』 「小兒方」에는 없다.

② 복원본 『향약구급방』 「소아방」에는 “用生薑”로 되어 있다.

③ 복원본 『향약구급방』 「소아방」에는 “以軟帛裹熨”로 되어 있다.

위에 비교된 것중 3)·10)·13)·25)·26)번 등 5개의 조문은 『향약집성방』에만 실려있고, 『향약구급방』 복원본에는 없다. 이에 대해 신영일은 重刊本 跋文을 인용하여 崔自河가 私藏한 原刊本중에 잘 보이지 않는 것을 꽤 완전한 것만을 重刊하였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⁶⁰⁾

2) 31조문 내용분석

『향약집성방』에 인용된 것은 모두 31조문 45개의 처방이다. 『향약집성방』에 인용된 『삼화자향약방』과 단행본 『향약구급방』의 내용이 같은 것은 모두 43개, 또 『향약집성방』에 인용된 『향약간이방』과 비교할 수 있는 처방이 1개가 있는 것으로 보아 『향약집성방』에 인용된 『향약구급방』의 내용은 실질적으로 모두 89개나 되는 셈이다. 고려시대에 『향약구급방』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널리 보급되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향약구급방』은 『비에백요방』과는 36개 처방이, 『태평성혜방』과는 7개 처방이 비교되고 있다. 단지 『향약집성방』에 있는 『향약구급방』 45개 처방중에 11개만이 비교되지 않고 있다. <표 2> 11개의 처방을 보면 湯劑와 末로 된 약물이 대부분이고 약물수는 모두 1-2개이다. 또한 치료법에서 보면 내복약이 대부분이나 熨法(찜질법)⁶¹⁾과 點眼法⁶²⁾의 치료법이 있다. 이는 중국

의학을 수용하여 自國醫學과의 융합을 통해 자주적인 모습의 의학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3.3.5. 『鄉藥惠民經驗方』

『향약혜민경험방』은 21개의 조문과 30개의 처방이 『향약집성방』에 인용되어 있다. <표 1>

중국의서와 비교된 처방은 모두 8개이다. <표 2> 다른 고려 의서들보다 중국의서와의 비교율이 대단히 적다. 중국의서와 비교가 되지 않는 처방을 분석하면 丸·餅·湯·末·膏와 술에 약물을 담가 두었다가 술을 복용하는⁶³⁾ 등의 약물 제형을 모두 사용하고 있고, 약물이 1-3개로 구성된 것이 대부분이다. 또한 내복약이 주로 사용되었고 沐浴·貼傳·塗法·點眼法 등도 있으며, 다른 고려 의서들에는 없는 結紮法⁶⁴⁾의 사용은 주목할만하다. 고려시대에 자주적인 의학경험이 많이 누적되었음을 알려준다.

3.3.6. 『三和子鄉藥方』

99조문에 걸쳐 『삼화자향약방』 238개가 『향

61) “治脫肛不縮。生薑一斤 細切 酥拌 炒熟 分兩 以軟帛裹熨之 冷則易 以入爲度。(빠져 나온 肛門이 잘 들어가지 않는 症狀을 치료하는 處方. 生薑 1斤을 잘게 썰어 酥에 버무려 잘 볶아서 2회에 나누어 부드러운 비단 수건에 싸서 찜질하되 식으면 바꿔 가면서 들어갈 때까지 한다.)”(俞孝通·盧重禮·朴允德 撰. 위의 책(7책) 『향약구급방』, 119-120.)

62) 앞의 『향약구급방』 복원본과 『향약집성방』에 인용된 내용의 비교에서 15)를 참조.

63) “治卒腰痛 暫轉不得。鹿角一枝 長五寸 燒令赤納二升酒中浸一宿 飲之。(卒腰痛으로 조금도 움직이지 못하는 症狀을 치료하는 處方. 5寸되는 鹿角 1枚를 벌겋게 태워 술 2升到 넣어 하룻밤 두었다가 그 술을 마신다.)”(俞孝通·盧重禮·朴允德 撰. 앞의 책(3책) 『향약혜민방』, 491.)

64) “生麻 左索結病人臂堅封有印則印 無印則署男左女右”(俞孝通·盧重禮·朴允德 撰. 앞의 책(3책) 『향약혜민방』, 433-434.)

60) 申舜植 等外, 『韓國韓醫學史 再定立』, 서울: 韓國韓醫學研究所, 1995: 202.

약집성방』에 들어 있다.〈표 1〉이중 181개 처방을 『비예백요방』과 비교하였다.〈표 2〉

三和子가 『備預百要方』을 근거로하여 『삼화자향약방』을 저술하였을 것이다.

김두종은 『향약집성방』 「柔風」에 있는 九味酒⁶⁵⁾에 대해 『성제총록』의 「유풍」조에 있는 “七味酒”⁶⁶⁾·“八味酒”⁶⁷⁾·“十九味酒”⁶⁸⁾·“二十一味酒”⁶⁹⁾ 등의 약재들과 비슷한 것이라고 하였으나,⁷⁰⁾ 이는 『비예백요방』⁷¹⁾의 처방과 같다.

또, 김두종은 『향약집성방』 「霍亂轉筋」에 인용된 내용⁷²⁾중 胡麻油·茅香을 사용한 처방 같은

것은 『외대비요』의 광란전근을 치료하는 처방에는 보이지 않고, 다만 鹽을 사용하는 처방은 『肘後方』에 있고 童便을 함께 사용치 않았다고 하였다. 그리고 黃梁米를 사용한 처방은 『외대비요』에서 『천금방』을 인용한 것이 있다고 하였다.⁷³⁾ 이에 대해서 황양미를 사용한 처방을 제외한 3가지의 처방은 모두 『비예백요방』의 내용과 같다.⁷⁴⁾

또, 김두종은 『향약집성방』 「小便不通」에 인용된 처방을⁷⁵⁾ 『외대비요』·『성제총록』과 비교해보고 그 사용방법이 일치되는 것이 없고, 枯桃木이나 桃木茸을 사용한 처방은 전혀 볼 수 없다고 설명하였다.⁷⁶⁾ 그러나 이 처방은 『비예

65) “(九味酒) 治手足不收 及皮膚遊風 刺風 獨活 五加皮 柏葉 松葉 牛膝 射干 白頭翁 苦參 菖蒲 各切二升半 ○ 右以水十二斗 煮取四斗 粘米 粳米 各一斗半 細麴少許 作酒 隨性飲之.” (〔九味酒〕 팔다리를 잘 쓰지 못하는 症狀(手足不遂)과 皮膚에 생긴 遊風¹⁾, 刺風²⁾을 치료한다. 獨活, 五加皮, 柏葉, 松葉, 牛膝, 射干, 白頭翁, 苦參, 石菖蒲(各切) 各2升半. 이상을 각각 썰어 물 12斗에 4가 되게 달인 것과 찹쌀(粘米), 입쌀(粳米) 각각 1斗半과 누룩 조금으로 술을 만들어 酒量에 맞게 服用한다.)” (俞孝通·盧重禮·朴允德 撰. 앞의 책(3책) 『삼화자방』, 76-77.)

66) 趙佶 撰. 위의 책(상권), 246.에는 七味酒의 처방은 없고 7개의 약물로 구성된 羌活湯이 있는데, 이것이 김두종의 七味酒인 것 같다.

67) 趙佶 撰. 앞의 책(상권), 248.에 약물 8개로 구성된 처방은 乳香煎丸과 五枝煎이 있는데, 五枝煎은 熨法和 服藥을 함께하는 것으로 김두종이 말하는 八味酒는 乳香煎丸으로 생각된다.

68) 趙佶 撰. 앞의 책(상권), 247.에 약물 19개로 구성된 처방인 酸漿仁煎이 있는데, 김두종의 十九味酒는 이 처방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69) 趙佶 撰. 앞의 책(상권), 247-248.에 있는 21개로 구성된 처방 白花蛇散이 있는데, 이것이 김두종의 二十一味酒라고 생각된다.

70) 金斗鍾 著. 위의 책, 154-155.

71) “手足不隨, 及皮膚游風 刺風方. 獨活 五加皮 柏葉 松葉 牛膝 射干 苦參 白頭翁 菖蒲. 右九味, 各切二升半, 以水十二斗, 煮取四斗, 粘米 粳米各一斗半, 細麴若干作酒, 隨性飲之.” (金禮蒙 等編. 위의 책(1책) 『備預百要方』, 656.)

72) “治霍亂轉筋 胡麻油塗病人足 向火灸之 既死乃活. 又

方 茅香煮湯 服之 以差爲度. 又方 鹽一大匙煎熱 以童子小便一升 溫和服之 小頃當吐下 則差 氣絕者 復通. 又方 黃梁米爲粉 水和服 以差爲度 兼治煩燥. (霍亂轉筋을 치료하는 處方. 胡麻油(참기름)를 환자의 발에 바르고 불을 켜면 쥐가 멎을 뿐 아니라 죽은 듯하던 사람도 살아난다. 又方. 茅香달인 물을 服用하되 나올때까지 服用한다. 又方. 소금을 크게 한 손가락을 볶아 뜨거운 것을 물 1升到 타서 따끈하게 하여 服用하면 조금 있다가 마하거나 泄瀉하고 낫는다. 기절했던 사람도 깨어난다. 又方. 黃梁米(메좁쌀)를 가루내어 물에 타서 나올때까지 服用한다. 겸하여 煩躁證도 낫게 한다.)” (俞孝通·盧重禮·朴允德 撰. 위의 책(3책) 『삼화자방』, 565-566.)

73) 金斗鍾 著. 위의 책, 155.

74) “霍亂轉筋方. 病人足塗胡麻油, 向火灸之, 既死乃活. 又茅香煮湯服之, 差爲度. 又鹽一大匙, 煎熱童子小便一升, 溫和服, 少頃當吐, 下則差, 氣絕者復通.” (金禮蒙 等編. 위의 책(책5) 『備預百要方』, 749.)

75) “治小便不通 葶藶子一合隔紙微炒 搗如泥 以棗肉和 搗爲丸 如菉豆大 每服十丸 不通 漸加至三十丸. [又方] 枯桃木 水煮飲之. [又方] 桃木茸 水煮服之. (小便不通을 치료하는 處方. 葶藶子 1合을 종이를 깔고 약간 볶아 되직하게 짓찧은 다음 棗肉으로 반죽하여 菉豆크기로 丸을 지어 每回 10丸씩 服用한다. 그래도 小便을 보지 못하면 양을 점차 늘려 30丸까지 服用한다. [又方]. 枯桃木 달인 물을 마신다. [又方] 桃木茸(복숭아나무 버섯) 달인 물을 服用한다.)” (俞孝通·盧重禮·朴允德 撰. 위의 책(4책) 『삼화자방』, 63.)

백요방』에 나온다.⁷⁷⁾ 그리고 葶藶子를 사용한 처방은 또한 『향약구급방』에도 나와있다.⁷⁸⁾

『삼화자향약방』의 238개 처방중 50%이상인 거의 단방약과 내복약으로 되어있다. 또한 치료 방법중에서 침으로 사혈시키는 방법,⁷⁹⁾ 향문에 약물을 삽입하는 방법⁸⁰⁾ 등 여러가지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의서와 비교가 되지 않은 것은 단지 23개로 다른 고려 의서들보다 중국의서 비교율이 많다. 따라서 『삼화자향약방』은 『비에백요방』을 토대로 하여 민간에서 사용되는 치료방법을 수집하여 저술된 의서로 생각된다.

76) 金斗鍾 著. 위의 책, 155.

77) “小便不痛方. …… 葶藶子一合. 隔紙微炒. 鶴如泥. 以麝肉和搗爲丸. 如綠豆大. 每服十丸. 不通. 至十三五丸. 西方枯桃木. 水煮飲之. 又桃木煮服.”(金禮蒙 等編. 위의 책 「大小便門3」(권136, 책6) 『備預百要方』, 678.)

78) “小便不通 …… 又葶藶子豆衣乃耳一合. 隔紙微炒. 搗如泥. 以麝肉和搗爲丸. 如菉豆大. 每服十丸. 不通至十三四丸.”(申榮日. 위의 논문, 155.)

79) “治無名惡瘡 猪脂慢火 煎 人髮銷了更下 松脂及蜜 煎之成膏 以鍼通瘡 小小刺之 軟帛拭血 貼前膏 效.(無名惡瘡을 치료하는 處方. 猪脂를 약한 불에서 졸이다가 亂髮을 넣고 녹도록 계속 졸인 다음 다시 松脂와 蜜을 섞어 膏藥을 만들어 붙이되 鍼으로 惡瘡을 여러 곳 찌른 다음 부드러운 비단으로 피를 닦아 내고 붙이면 낫는다.)”(俞孝通·盧重禮·朴允德 撰. 위의 책(5책) 『삼화자방』, 399-400.)

80) (破棺煎) 治乾嘔 羸瘦多睡 面萎黃 不下食 變爲疳蟲 猪膽 和生薑汁 以米醋半合 和灌下部中 以手急捻 待氣上至喉中 乃除手必下 五色惡物及細赤小蟲子 若未差 更灌 不過三度 忌一切毒物. ((破棺煎) 乾嘔가 나면서 몸이 여위고 가래침이 많으며 얼굴빛이 누렇게 되면서 潤氣가 없고 음식물을 먹지 못하다가 疳蟲症이 된 症狀을 치료한다. 猪膽을 生薑汁에 섞은 다음 米醋 半合에 타서 灌腸하고 빨리 肛門을 막는다. 咽喉에서 藥냄새가 올라오면 肛門에 막았던 것을 빼면 이때 다섯가지 색깔이 나는 것은 물과 붉은 색의 작은 벌레를 淸한다. 낫지 않으면 다시 灌腸하는데 3회를 넘지 않는 것이 좋다. 藥을 쓸 때 一切 毒이 있는 것은 忌한다.)”(俞孝通·盧重禮·朴允德 撰. 위의 책(4책) 『삼화자방』, 361.)

3.3.7. 『鄉藥簡易方』

42개 조문에 걸쳐 『향약간이방』 60개가 『향약집성방』에 들어 있다.(표 1) 중국의서와 비교한 것은 31개인데, 이중 『성제총록』과는 17개 처방을 비교하였다.(표 2) 중국의서와 비교할 수 없는 것은 29개 처방이다.

이 의서에서 『향약집성방』 「각기문」에 있는 처방을 주목해서 고찰을 해 보아야 한다. 그 처방내용은 아래와 같다.

“治脚氣 風濕毒氣攻心 煩悶 手足脈絕 木菓一枚切作片曝乾 吳茱萸湯洗焙乾炒三兩 ○ 右蠶搗節 每服三錢 水二盞 煎至七分 去滓 溫服 如人行五七里 再服⁸¹⁾”

위 처방은 『高麗老師方』에 나온 脚氣를 치료하는 처방⁸²⁾과 약물구성이 같다.

또, 『향약구급방』에 나오는 처방과 동일한 것이 있다. 아래에 비교하였다.

『향약간이방』: [聖濟總錄] …… 〈28〉 『鄉藥簡易方』 赤馬尿 不計多少 每服一兩盞⁸³⁾

『향약구급방』: 諸食中毒者, …… 飲馬尿亦

81) “脚氣와 風濕毒氣가 가슴으로 치밀어서 몹시 답답하고 手足에 脈이 뛰지 않는 症狀을 치료하는 處方. 木瓜(切作片曝乾) 1枚, 吳茱萸(끓는 물에 씻어 약한 불에 말려 볶은 것) 3兩. 以上을 거칠게 가루내어 每回 3錢씩을 물 2盞에 달여 7분 되면 찌꺼기를 짜 버린 다음 溫服하고 25-35분쯤 지나서 다시 服用한다.”(俞孝通·盧重禮·朴允德 撰. 위의 책(3책) 『향약간이방』, 451.)

82) “又若毒氣攻心手足脈絕, 此亦難濟, 不得已作此湯, 十愈七八方. 『千金』云 ‘治脚氣入腹因悶欲死腹脹茱萸湯方’. 吳茱萸 六升 木瓜 二枚切. 右二味, 以水一斗三升, 煮取三升, 分三服, 或以吐汗便活. 蘇恭云: ‘服得活甚易, 但鐵擊一作急, 少時熱悶耳.’ 此方是爲起死, 是『高麗老師方』與『徐王方』相似, 故應神妙. 備急千金, 蘇徐同方云: ‘無木瓜, 可取吳茱萸一色, 煮服. 又方, 加青木香 三兩, 犀角 二兩屑.’ 亦云: ‘此湯, 起死人.’”(王燕 撰. 위의 책, 349.)

83) 俞孝通·盧重禮·朴允德 撰. 위의 책(5), 617.

良.⁸⁴⁾

위의 두가지 예와 중국의서와의 비교율이 낮은 것으로 보아, 『향약집성방』 또한 고려시대 의학의 자주적인 내용을 주로하여 기재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3.3.8. 『東人經驗』

『향약집성방』에는 6조문에 걸쳐 『동인경험』 8개와 『신편집성마의방』에는 5조문에 걸쳐 『동인경험』 13개가 들어 있어(표 1) 지금 알 수 있는 『동인경험』은 모두 11개조문, 27개이다. 중국의서와 비교할 수 있는 것은 1개뿐이다.(표 2) 이는 『향약집성방』 「요통문」에 실려있는 “治腰疼 及落馬腰疼 括瓜子炒爲末 空心 溫酒 服一匕 神驗”⁸⁵⁾이라는 처방으로 『壽域神方』⁸⁶⁾과 비교할 수 있다.

마지막에 있는 『위생이간방』과 내용이 동일한 것으로 보아 『위생이간방』과 관련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김두중은 이에 대해 『외대비요』의 「요통」처방에는 括瓜子가 없다고 하였다.⁸⁷⁾

또, 김두중은 『향약집성방』 「곽란문」에 인용된 처방에 대해 『외대비요』나 『성제총록』의 곽란구법(灸法)에는 대개 心下·臍上·臍下の 經穴에 뜸을 뜨는 처방이 있고 後項部の 風池穴에 뜸을 뜨는 방법은 없다고 하였다.⁸⁸⁾

84) 申榮日. 위의 논문, 7.

85) “腰痛과 말에서 떨어져 허리가 아픈 症狀을 치료하는 處方. 括瓜子(참외씨)를 볶아 가루내어 每回 한 숟가락씩 溫酒로 服用하면 效驗이 있다”(俞孝通·盧重禮·朴允德 撰. 앞의 책(3책) 『동인경험』, 489.)

86) “無故腰腿疼痛難忍者, 用括瓜子三兩, 酒浸十日, 曝乾爲末, 每服三錢, 空心溫酒調下, 日三服. 衛生易簡方同.”(金禮蒙 等編. 위의 책(책5) 『壽域神方』, 359.)

87) 金斗鍾 著. 위의 책, 155.

88) 金斗鍾 著. 위의 책, 155.

Ⅳ. 고려 의서들의 내용분석

고려 의서들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보면 증상을 말하고 처방을 기술하는 대중요법식이다. 基礎理論과 臨床醫學으로 나누어 고려 의서들의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기초이론은 생리학·병리학·진단학 등의 면에서, 임상의학은 치료방법, 약물제형 등의 면에서 알아보았다.

4.1. 기초이론

김두중은 생리학은 『내경』을 따라 기술한 隋唐醫學의 陰陽五行說에 의거한 생리설과 이외에 宋代에 첨가된 五運六氣說을 첨가한 것에 영향을 받았다고 하였다.⁸⁹⁾ 그러나 고려 의서들 내용중에 직접적으로 나와 있는 음양오행설과 오운육기설은 없었다.⁹⁰⁾

고려 의서들을 인용한 『향약집성방』의 病因 분류라고 할 수 있는 風寒暑濕火(熱)의 門이 있으므로, 고려 의서들 또한 이러한 병인에 대한 인식은 있었을 것이다. 예를 들어 「風門」에 나타나는 卒中風不語·諸風頑痺·歷節風·皮膚風·癢·四肢中風·頭面風·風癰疹·風痺筋攣·賊風瘰·癰瘍風·風濕痺 등이외에 牙齒風疼痛같이 脚氣·頭痛·眼赤·喉風·臍風 등 신체부위나 증상에 風字를 붙여 病因이 風임을 표시하였다. 寒의 병인과 관련있는 것은 肺感寒邪·中寒·傷寒頭痛·胎寒 등이 있고, 暑와 관련된 것은 理暑喝所中·暑傷肌膚瘡爛으로 기술하고 있고, 濕과 관련있는 것은 濕痺·痺濕筋急·囊濕及腫·陰濕痺 등과 같이 痺症과 관련을 많이 두고, 熱(火·溫)과 관

89) 金斗鍾 著. 앞의 책, 164.

90) “補腎脂丸 療水腫 補益腰膝 發花色 進飲食.”(金禮蒙 等編. 위의 책(책5) 『어의촬요』, 360-361.)에서 腎臟을 水腫으로 표시하고 있다.

런된 것도 瘡·瘡腫·煩滿·淋·頭痛·痢疾 등의 증상에 熱字를 붙여 病因임을 표시하였다. 또한 治法에 理一切風 順風氣 등으로 서술되어 있기도 하다. 또한 장부와 관련하여 腎冷·膀胱久冷·血氣風冷 등의 말도 있다. 이외에 瘀血·痰飲·脾胃氣弱·酒傷 등을 원인으로 삼아 증상을 말하고 있는 것도 있다. 따라서 病因을 風寒·暑濕火(熱)을 위주로, 五臟六腑(특히 腎臟과 膀胱의 冷症)에는 冷熱과 虛實로 구분하고,⁹¹⁾ 2차 병인이 라고 할 수 있는 瘀血·痰飲과 이외의 酒까지도 병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다음으로 오장육부에 대해 알아보자. 병리는 오장육부를 관련시켜 설명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몇가지 예는 다음과 같다.

『향약집성방』에서 인용한 『어의촬요』의 내용 중 “治以志不定 精神恍惚 善驚數恐 常多 忪悸 久服 益心強志 令人不忘 …… 常服 鎮益心神”⁹²⁾이라고 되어 있는 “定志圓”조를 보면 결국 心과 神이 관계가 있으며 心과 驚恐·忪悸·健忘 등의 증상과 관계를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心에 대한 내용은 몇가지 더 볼 수 있다.⁹³⁾ 『향약간방』에는 脚氣病에 風濕의 毒氣가 心에 침입했을 때에는 煩悶과 手足脈이 絶할 수 있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脾胃에 대한 기사는 『어의촬요』에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다. 우선 “治脾胃氣弱 不能食 ……”⁹⁴⁾ 등과 『의방유취』 『비위문』에서 보

이는 여러 처방⁹⁵⁾들에서 비위와 일반적인 소화기 질병들과의 관계를 알 수 있다.

『어의촬요』의 “理腎臟虛德 膀胱久冷 腰脚疼痛 筋骨衰弱 ……”이라는 肉蓯蓉丸의 내용에서는 腎·膀胱과 腰脚과의 관계를 볼 수 있다.⁹⁶⁾ 또한 腎과 음식소화의 관계⁹⁷⁾ 등을 알 수 있는 내용도 있다.

병리학에 대한 내용은 몇가지 단서가 나온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六淫이라는 風寒·暑濕·燥·火(熱)을 병인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에, 이를 통한 병리소견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冷熱氣不調 痢下膿血不止”, “療風氣結聚 宿食不消”, “主肺感寒邪 胸膈不利”, “耳內痛 如刀刺 此風毒滯聚所致”, “脚氣 風濕毒氣攻心 煩悶”, “噎病 胸膈積冷 飲食不下”, “理產前產後 血氣風冷”, “治中寒 心腹痛”, “暑傷肌膚瘡爛”, “理暑喝所中” 등과 같은 내용이 보인다. 이를 보면 病因(六淫)이 오장육부에 침입하거나 혹은 내부에서 뭉쳐서 막혀 증상이 발한다는 병리적 소견이 있다. 이외에 “療氣滯不勻 胸虛痞 宿食不消”, “治胸膈一切結實 冷熱衝塞不調”, “治擁氣腰痛”, “治血瘀塊結腹痛”, “產前後 腰腹痛 一切血瘀” 등에서 氣와 血이 막혀서(氣滯·擁氣·血瘀·血瘀塊結 등) 증상들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또, 오장육부(내부장기)에서 발생하는 증상에 대해서는 장부의 냉열과

撰. 앞의 책(6책) 『향약이간방』, 732.)

95) 小理丸·橘皮丸·化痰玉壺丸·沈香湯·六一湯·白朮湯·豆蔻湯·藜香湯·厚朴湯·金粟湯(金禮蒙 等編. 위의 책(5책) 『어의촬요』, 563.) 등에서 비위를 치료하여 음식을 먹게하고 泄瀉를 멈추고 腹痛을 없애는 것 등을 볼 때 비위의 기능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96) 이외에도 『향약이간방』의 “治腎藏風冷 腰脚疼痛”이라는 말을 볼 수 있다.

97) 앞의 ‘補骨脂丸’조를 참조. (金禮蒙 等編. 앞의 책(5책) 『어의촬요』, 360-361.)

91) “肉蓯蓉丸 理腎臟虛德 膀胱久冷 腰脚疼痛 筋骨衰弱”(金禮蒙 等編. 앞의 책(5책) 『어의촬요』, 360.); “治腎熱四肢腫滿 拘急”(俞孝通·盧重禮·朴允德 撰. 위의 책(4책) 『향약이간방』, 402.) 등 여러 예를 볼 수 있다.

92) 俞孝通·盧重禮·朴允德 撰. 앞의 책(3책), 637.

93) “人參丸 鎮心安神 化痰利胸膈 療驚.”(俞孝通·盧重禮·朴允德 撰. 앞의 책(3책) 『어의촬요』, 637.)

94) “治小兒脾胃氣不調 不嗜食飲”(俞孝通·盧重禮·朴允德

허실로서 그 병리적 소견을 밝히고 있는데, 그 예로 “理腎臟虛德 膀胱久冷 腰脚疼重 筋骨衰弱”, “理腎弱 攻腰膝冷痛”, “小兒胎寒 多患晝夜啼”, “腎熱 四肢腫滿”, “腎臟風冷 腰脚疼痛”, “小兒脾胃氣 不調 不嗜食飲”, “小兒熱氣熏蒸臟腑 煩燥”, “療五藏蘊積毒氣 及一切癰疽腫毒 心腹疼痛” 등의 예가 있다. 1차증상이 다른 증상으로 변화되는 병리적 소견도 볼 수 있는데, “脚氣衝心 上氣”, “理痰涎潮盛 卒中風不語”, “主久患宿疾勞病 臟腑久冷 黃黑瘦弱”, “久患 冷氣心腹結痛”, “丁毒入腹 乃至氣絕” 등이 있다.

진단학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자. 증상과 처방을 연결하는 서술방식이 주류이기 때문에 한방 진단의 전형적인 방법인 四診(望聞問切)의 방법이 나타나 있지 않다. 다만 切診에 해당하는 맥에 대해 『향약간이방』중 각기처방중에 “手足脈絕”이라는 말이 나올 뿐이다. “治鮮血而後便謂之藏毒”⁹⁸⁾, “治小兒臍腫 多啼不能乳哺 卽成臍風”⁹⁹⁾ 등을 볼 때 질병을 진단하는데 있어서 특징을 파악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전체적인 서술방식이 증상 대 처방의 방식임은 앞서서도 서술하였는데, 이러한 서술방식중에 같은 증상이라도 처방이 다른 경우도 있는데, 이는 한 증상에 부증상의 차이에 따라 처방이 달라진 것이다. 따라서 체계적이지는 않지만 辨證論治에 충실하려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

4.2. 임상의학

고려시대 의서의 전체 처방 509개에 대하여 『향약집성방』의 門에 따른 비율을 알아보고(표

3), 약물의 구성, 單複方의 有無, 치료방법 등에 대해 특징적인 것만을 서술하였다.

우선 「風病門」은 『동인경험』을 제외한 전 고려 의서들에 나타나고 있는데, 45개 처방중 『어의촬요』(『의방유취』에서 발췌한 내용)는 10개(22.2%), 『삼화자향약방』은 29개(64.4%)를 차지하고 있다. 병인을 문으로 하는 「風病門」·「傷寒門」·「熱病門」·「暑病門」에 51개 처방이 나오는데 그 중 『어의촬요』(『의방유취』에서 발췌한 내용)는 13개(25.5%), 『삼화자향약방』은 31개(60.8%)를 차지하고 있다.

「脚氣門」의 14개 처방중 『향약간이방』에 6개(42.9%) 처방이 있다. 「虛損門」의 15개 처방은 『어의촬요』(『의방유취』에서 발췌한 내용)에 12개(80%)가 나와있다. 「大小便門」의 처방 13개 중 『삼화자향약방』에서 10개(76.9%)를 차지하고 있다. 「諸淋門」의 14개 처방중 『삼화자향약방』이 12개(85.7%)를 차지하고 있고, 「心痛門」·「諸欬門」의 내용은 여러 고려 의서들에서 고루 나타난다. 「嘔吐門」의 10개 처방중 『삼화자향약방』이 8개(80%)를 차지하고 있다. 「脾胃門」의 11개 처방중 『어의촬요』(『의방유취』에서 발췌한 내용)에 10개(90.9%), 「眼門」(11개)중 『삼화자향약방』이 63.6%(7개)를 차지하고, 「諸痢門」의 23개 처방중 『어의촬요』(『의방유취』에서 발췌한 내용)에 5개, 『삼화자향약방』에 10개가 나오는데, 이 두 의서가 65.2%를 차지하고 있다.

「癰疽瘡瘍門」에는 81개 처방이 있는데, 『삼화자향약방』은 50개(61.7%)로 가장 높은 비율을 가지고 있다. 각 의서중에서 『옹저창양문』의 부분이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예컨대, 『어의촬요』는 8개(7.9%), 『향약구급방』은 5개(11.1%), 『향약혜민경험방』은 10개(33.3%), 『향

98) 俞孝通·盧重禮·朴允德 撰. 위의 책(5책) 『향약혜민방』조, 77.

99) 俞孝通·盧重禮·朴允德 撰. 앞의 책(6책) 『향약이간방』조, 648.

약간이방』은 8개(13.3%)를 차지하고 있다. 또, 『諸損傷門』에는 13개 처방이 있는데, 『삼화자향약방』이 10개(76.9%)를 차지하고 있다. 앞의 예에서 보듯이 당시 外科學에 대한 인식은 대단히 높았음을 알 수 있고 그중 『삼화자향약방』은 68개로 외과학 분야의 전체 처방 112개중 60.7%를 차지하고 있어 이 책이 외과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부인과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崩漏·女陰·妊娠疾病·產難·產後 등의 증상으로 분류하였는데, 전체 33개 처방중에 『어의촬요』는 2개(6.1%), 『향약구급방』은 7개(21.2%), 『삼화자향약방』은 14개(42.4%), 『향약간이방』은 10개(30.3%)를 차지하고 있다. 이중 『향약구급방』과 『향약간이방』은 알려진 내용중 부인과 내용이 15%이상이나 된다. 전체 33개 처방중에 산란에 관련된 것은 9개(27.3%), 산후에 관련된 것은 13개(39.4%)로 전체의 60%정도 차지하는 것을 볼 때, 여자들의 질병에 대해서는 月經病, 性器病이나 임신시의 질병보다 당시 출산과 그 처치에 관련된 부분을 중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小兒門』의 처방이 나온 의서는 단지 『향약구급방』, 『삼화자향약방』, 『향약간이방』 등 3종의 의서뿐이다. 이들 3종의 의서에 나온 소아과와 관련된 처방은 모두 42개이다. 『향약구급방』은 5개(11.9%), 『삼화자향약방』은 19개(45.2%), 『향약간이방』은 18개(42.9%)를 차지하고 있고, 다시 각 의서에서 소아과 내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큰 것은 『향약간이방』으로 30%나 된다.

다음으로는 약물제형·처방의 단복방·치료방법 등에 대해 개략적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고려 의서들에 나타난 처방에는 약물을 丸·

餅·湯·末·음식·汁·膠·膏 등의 製型으로 만들어서 사용하였다. 이중 가장 많이 이용되는 제형은 湯과 末이었다. 그리고 약물을 음식의 형태¹⁰⁰⁾로 만들어 사용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는데, 특히 粥으로 만들어 이용하는 경우도 많았다. 증상에 따라 약물의 제형에 특징이 있는데, 『風病門』의 증상에는 약물을 술에 담가 그 술을 복용하거나 혹은 술로 만들어 복용하는 방법이 많았다. 또한 풍병에는 熨法(신체에 점질하는 것)을 위한 약물을 천으로 싸는 것도¹⁰¹⁾ 볼 수 있다. 그리고 癰疽瘡瘍 등의 증상에는 貼傳療法(약물을 신체에 붙이는 방법)을 위해 末의 형태를 이용하였고, 痔瘻에 사용되는 『동인경험』의 처방은 항문에 삽입하는 요법을 위해 挺의 형태로 만들어 사용하였다.

처방약물수는 약물 1개로 된 단방 위주이고, 처방은 4개이하의 약물로 구성된 것이 대부분이었다.

치료방법에는 熨·內服·沐浴·洗法(국소부위를 탕액으로 씻는 방법)¹⁰²⁾·附缸·鍼灸·貼傳·塗

100) “治瘡瘻寒熱 邪氣泄利. 小豆花於豉汁中煮 五味和作羹 食之. (瘡瘻으로 寒熱이 나는 症狀에 邪氣를 泄瀉시켜 나가게 하는 方法. 小豆花(팥꽃)를 豉汁에 넣고 끓인 다음 다섯가지 양념을 해서 국처럼 먹는다.)”(俞孝通·盧重禮·朴允德 撰. 앞의 책(3책) 『향약간이방』, 434.); “[馬齒粥] 治血痢. 馬齒菜二大握切 粳米三合杵細 ○ 右爲水 和馬齒菜 煮粥 不著鹽醋 空腹 淡食 一頓效. (馬齒粥: 血痢를 치료한다. 馬齒菜(切) 2握(大), 粳米(杵細) 3合. 쌀과 馬齒菜(쇠비름)를 같이 넣고 죽을 쑤어 소금이나 식초를 넣지 않고 空腹에 싱거운 것을 한 번에 다 服用한다.)”(俞孝通·盧重禮·朴允德 撰. 앞의 책(5책) 『삼화자향약방』, 26-27.)

위의 예와 같이 음식으로 된 처방들은 粥과 羹으로 되어 있다.

101) 俞孝通·盧重禮·朴允德 撰. 앞의 책(3책) 『제증입효방』, 103.의 앞에 인용한 글을 참조.

102) “治眼黑睛瑩薄 有瘡翳者. 秦皮一兩 梔子二七枚 淡竹葉一握 ○ 右各切 綿裹 以水一升 置銅器中 煎三五沸 去

(약물을 바르는 것)·透臍·結紮·灌腸·吹法¹⁰³)·
摩擦¹⁰⁴)·點眼·熏法(약물을 태워 나오는 연기를
쐬는 것)¹⁰⁵)·含漱(약탕액을 입에 머금고 있는
것) 및 呪術¹⁰⁶) 등이 있고, 거의 대부분은 內服
法이었다. 특히 외과질환에서는 貼傳와 塗法을
많이 사용하였다.

위의 내용으로 보아 고려시대 임상의학은 증
상의 인식, 약물제형과 치료방법에 있어서는 높
은 수준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다만 처방의
약물수에 있어서는 단방이 많음을 볼 때, 한 약
물의 효능에 대한 인식은 깊었으나 약물의 상호
배합에 대한 것은 그리 깊지 않았다고 생각된
다.

滓洗.(眼黑睛이 광채가 적고 눈구석에 瘡이나 翳膜이 생
긴 症狀을 치료하는 處方. 秦皮 1兩, 梔子 14枚, 擔竹葉 1
握. 以上을 각각 썰어 무명 수건을 싸서 구리 그릇에 담고
물 1升을 넣어 3-5번 끓여오르게 달인 다음 찌꺼기를 짜 버
린다. 그 물에 눈을 씻는다.)”(俞孝通·盧重禮·朴允德 撰.
앞의 책(4책) 『삼화자방』, 572-573.)

103) “治衄血. 蒲黃末 吹入鼻中 卽止.(코피나는 것을 멈
추게 하는 處方. 蒲黃末을 콧구멍안에 넣어 넣으면 멎는
다.)”(俞孝通·盧重禮·朴允德 撰. 앞의 책(4책) 『향약구급
방』, 434.)

104) “治小兒生下後 胎臍相連爛絕 胎衣不出. 以長布纏腹
伏於床上 用力磨服 卽下 神驗.(産後에 아이의 배꼽과 연결
된 탕줄이 문드러져 끊어져서 胎盤이 나오지 않는 症狀을
치료하는 處方. 긴 수건을 배에 감고 침대에 엎드리게 하
고 배를 세게 문지르면 곧바로 나온다.)”(俞孝通·盧重禮·
朴允德 撰. 앞의 책(6책) 『향약이간방』, 475.)

105) “治目盲. 將盲時 取長流川中小石 燒之 投童子小便
熱氣入目.(눈이 먼(目盲) 증상을 치료하는 處方. 눈이 멀
려고 할 때에 흘러내리는 강물 속의 작은 돌을 불에 달궈
물에 담그면서 뜨거운 김을 쐬다.)”(俞孝通·盧重禮·朴允德
撰. 앞의 책(4책) 『삼화자방』, 559.)

106) “治難產. 蓮花葉一片 書作人字 吞之 立則卽出.(難産
때 쓰는 處方. 蓮花葉(연잎)에 人字를 써서 삼키면 곧바
로 낳는다.)”(俞孝通·盧重禮·朴允德 撰. 앞의 책(6책) 『향
약구급방』, 437.)

V. 맺음말

고려시대 醫藥史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에 나온 醫書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전제될
때 가능하다. 의서는 당시 의학의 수준이 어떠
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거울이고 또 醫藥
史의 내용을 담아내는 그릇이기 때문이다.

고려 의서들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과 필요성
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
이다.

조선시대 『鄉藥集成方』(1433년), 『醫方類聚』
(1445-1477년)와 『新編集成馬醫方』에서 인용된
『東人經驗』·『三和子鄉藥方』·『御醫撮要』·『濟衆
立效方』·『鄉藥古方』·『鄉藥救急方』·『鄉藥簡易
方』·『鄉藥惠民經驗方』 등을 지은 사람은 누구이
고, 지어진 시기는 언제이며, 거기에는 어떤 기
초의학과 임상의학의 내용을 담고 있는지 밝혀
보았다. 또 당시 고려에 들어온 중국 의서들과
비교하여 고려시대 의학을 간접적으로 평가하여
보았다.

『鄉藥惠民經驗方』은 惠民局 醫人이 해민국이
설치된 1118년 이후에 지었을 것이고, 『濟衆立效
方』은 金永錫이 1147-1166년 사이에 지은 것이
며, 『御醫撮要』는 崔宗峻이 1226년에 지었고,
『三和子鄉藥方』은 三和子가 『鄉藥救急方』
(1232-1251)이 지어진 전후시기에 완성한 것으
로 보인다. 『鄉藥救急方』은 大藏都監이 설치된
1232-1251년에 지어진 著者未詳의 응급처방서
이고, 『鄉藥簡易方』은 1393년이전 高麗末에 나
온 著者未詳의 簡易方이다. 『鄉藥古方』은 지은
이와 저자를 분명히 알 수 없다. 『東人經驗』은
단행본으로 된 것은 아닌 것 같고, 당시 시골에
서 유용하게 널리 쓰이던 단편적인 민간처방을

『鄉藥惠民經驗方』을 편집할 때 넣은 것으로 생각된다.

고려의사들은 唐代의 『千金要方』·『外臺秘要』와 宋代의 『太平聖惠方』·『聖濟總錄』 등 方書를 주로 인용하고 있어, 고려의서는 이론적인 면보다는 임상적인 면에 특징이 있다. 중국의서를 인용할 때에도 그대로 인용한 것보다는 약물 구성·主治症·치료방법·약물제형·복용방법·처방명 등에 차이를 보인다. 또, 의약에 조예가 있는 우리나라 사람이(東人) 경험한 유익한 처방을 수집하여 『鄉藥惠民經驗方』에 수록하고 있다. 이 점은 주목할만하다. 단순한 중국의학의 도입에서 벗어나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수정하고 또 향약에 대한 우리 자신의 경험을 축적해 나가는 모습은 독자적인 우리나라 醫藥의 터전을 마련하는 기초가 되고 있다.

參考文獻

1. 金信根 編者. 『新編集成馬醫方』. 『韓國醫學大系』(50). 서울: 驪江出版社, 1988.
2. 金용옥. 『동양학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통나무, 1986.
3. 申榮日. 『『鄉藥救急方』에 對한 研究』(復原 및 醫史學的 考察). 慶熙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94.
4. 孫昌學. 『『三和子鄉藥方』의 刊行時期에 對한 研究』. 慶熙大學校大學院, 1992.
5. 李德鳳. 『『鄉藥救急方』의 方中鄉藥目 研究』. 『大韓漢醫學會報』1966: 1·2·5·6·7·8·9.
6. 許興植 編著. 『韓國金石全文』(中世上). 「340. 金永錫墓誌」. 서울: 亞細亞文化社, 1984.
7. 金斗鍾 著. 『韓國醫學史』. 서울: 探求堂, 1979.
8. 三木榮 著. 『朝鮮醫書誌』. 重修版. 大阪: 學術圖書刊行會, 1956.
9. 民族文化推進會 編輯. 『影印標點 韓國文集叢刊』1. 서울: 民族文化推進會, 1991.
10. 민족문화추진회 편집. 『동국이상국집』III.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1979.
11. 金信根 編著. 『韓醫藥書攷』. 初版 第3刷. 서울: 서울大學校出版部, 1989.
12. 影印縮刷版 『朝鮮王朝實錄』一. 서울: 國史編纂委員會, 1968.
13. 孫弘烈 著. 『韓國中世의 醫療制度研究』. 1쇄. 서울: 修書院, 1988.
14. 民族文化推進會 編輯. 『影印標點 韓國文集叢刊』7. 서울: 民族文化推進會 發行, 1990.
15. 金然 編纂. 『海東文獻總錄』. 1쇄. 서울: 新韓書林, 1969.
16. 俞孝通盧重禮朴允德 撰. 『鄉藥集成方』. 『韓國醫學大系』(3-7권). 서울: 驪江출판사, 1988.
17. 李茂如·胡天福·李若鈞 編著. 『歷代史志書目著錄醫籍匯考』. 1版1刷.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4.
18. 甄志亞 主編; 傅維康 副主編. 『中國醫學史』. 1판1쇄.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1.
19. 洪元植. 『中國醫學史』.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4.
20. 陳師文等 奉勅撰. 『太平惠民和劑局方』(권2). 『中國醫學大系』(9권). 서울: 驪江出版社, 1987.
21. 王燾 撰; 高文鑄 校注. 『外臺備要方』. 1판1쇄. 北京: 華夏出版社, 1993.
22. 金禮蒙 等編. 浙江省中醫研究所·胡州中醫院校. 『醫方類聚』(1책).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23. 王懷隱 等編. 『太平聖惠方』(1책). 北京: 平常心出版社, 1988.
24. 孫思邈 著. 『備急千金要方』. 1版1刷. 北京: 華夏出版社, 1993.
25. 趙佶撰. 『聖濟總錄』(上卷). 1版4刷.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2.
26. 申舜植 等外. 『韓國韓醫學史 再定立』. 서울: 韓國韓醫學研究所, 1995.

색인어

『濟衆立效方』, 『御醫撮要』, 『三和子鄉藥方』, 『鄉藥救急方』, 『鄉藥簡易方』, 『鄉藥古方』, 『東人經驗』, 『鄉藥惠民經驗方』

표 1. 고려 의서의 인용 회수

조선 의서 고려의서	『향약집성방』	『의방유취』	『신편집성마의방』	합계
『제중입효방』	1조문, 1처방			1조문, 1처방
『어의촬요』	12조문, 13처방	26조문, 88처방		38조문, 101처방
『향약고방』	4조문, 7처방			4조문, 7처방
『향약구급방』	31조문, 45처방			31조문, 45처방
『향약해민경험방』	21조문, 30처방			21조문, 30처방
『삼화자향약방』	99조문, 238처방			99조문, 238처방
『향약간이방』	42조문, 60처방			42조문, 60처방
『동인경험』	6조문, 8처방		5조문, 19처방	11조문, 27처방

표 2. 고려 醫書와 中國 醫書 비교

시대	高麗醫書	『濟衆立 效方』	『御醫攝 要』	『鄉藥 古方』	『鄉藥救 急方』	『鄉藥惠民 經驗方』	『三和子鄉 藥方』	『鄉藥簡 易方』	『東人經 驗』	합 계 1	
	中國醫書										
唐	『千金要方』		2		3(4.4)		9(3.2)			14(3.3)	47 (11.2)
	『外臺秘要』				6(8.8)	2(25)	22(7.8)	3(9.7)		33(7.9)	
宋	『大全本草』					1(12.5)	7(2.5)	1(3.2)		9(2.2)	108 (25.8)
	『太平聖惠方』		9	1(25)	7(10.3)		28(9.9)	3(9.7)		48(11.5)	
	『聖濟總錄』		1	1(25)	5(7.4)	1(12.5)	14(4.9)	17(54.8)		39(9.2)	
	『和劑局方』		9							9(2.2)	
	『神巧萬全方』				1(1.5)		2(0.7)			3(0.7)	
明	『永類鈴方』		1							1(0.2)	9(2.1)
	『壽域神方』				3(2.2)		4(1.4)		1(100)	8(1.9)	
기타	『銀碎錄』				2(2.9)		2(0.7)	2(6.5)		6(1.4)	255 (60.9)
	『煙霞聖效方』				1(1.5)					1(0.2)	
	『經驗良方』							1(3.2)		1(0.2)	
	『食醫食鑑』				1(1.5)		1(0.4)	2(6.5)		4(1.0)	
	『居家必用』					1(12.5)				1(0.2)	
	『備預百要方』	1(100)	1	1(25)	36(52.9)	2(25)	181(64.0)			222(53.1)	
	『衛生簡易方』			1(25)	2(2.9)		11(3.9)	2(6.5)		16(3.9)	
	『千金月令』				1(1.5)		2(0.7)			3(0.7)	
	『助道方』					1(12.5)				1(0.2)	
합 계 2		1(0.2)	23(5.5)	4(1.0)	68(16.4)	8(1.9)	283(67.4)	31(7.4)	1(0.2)	419(100)	

* () : %

* 기타 의서들은 저술시기 분명치 않음.

표 3. 고려 의서를 인용한 조선 의서의 門名과 編名

		인용된 門과 편	합계	
『제중입효방』	『향약집성방』 : 風病		1	
『어의촬요』	『향약집성방』	驚悸·水病·心痛·諸欬·脾胃·鼻衄·齒牙·諸痢·產後	9	35
	『의방유취』	諸風·諸暑·傷寒·齒·耳·血病·心腹痛·腰脚·脚氣·脾胃·嘔吐·霍亂·宿食·咳嗽·諸瘡·水腫·諸痢·泄瀉·諸虛·驚悸·酒病·癰疽·諸瘡·湯火傷·雜病·婦人	26	
『향약고방』	『향약집성방』 : 風病·諸欬·諸痢		3	
『향약구급방』	『향약집성방』 : 風病·瘡病·脚氣·三疳·水病·大小便·諸淋·諸疝·心痛·諸欬·噎膈·鼻衄·頭·眼·咽喉·癰疽瘡瘍·打傷跌撲·中諸毒·婦人 女陰·婦人 難產·小兒		21	
『향약해민경험방』	『향약집성방』 : 風病·傷寒·瘡病·腰痛·三疳·心痛·諸欬·鼻衄·頭·眼·咽喉·諸痢·癰疽瘡瘍·打傷跌撲		14	
『심화지향약방』	『향약집성방』 : 風病·熱病·諸暑·積熱·瘡病·脚氣·腰痛·霍亂·三疳·水病·大小便·諸淋·積聚·心痛·嘔吐·噎膈·鼻衄·頭·眼·耳·口舌·齒牙·諸痢·痔漏·癰疽瘡瘍·打傷跌撲·諸損傷·蟲獸傷·婦人 崩漏·婦人 女陰·婦人 妊娠疾病·婦人 難產·婦人 產後·小兒		34	
『향약간이방』	『향약집성방』 : 風病·積熱·瘡病·脚氣·腰痛·霍亂·諸氣·齒牙·癰疽瘡瘍·諸損傷·中諸毒·諸救急·婦人 難產·婦人 產後·小兒		15	
『동인경험』	『향약집성방』	瘡病·腰痛·霍亂·虛損·嘔吐·痔漏	6	11
	『신편집성마의방』	又東人經驗牧養法·治脾部·諸脹·疥瘡·咳嗽	5	